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10월 26일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열린 한국의 날 기념식에서 매사추세츠 태기 찬 하원의원(가운데)이 한국의 날 선포서를 읽고 있다. (사진좌측부터) 로디 맘, 게이코 오렐, 폴 슈미드, 태기 찬, 도널드 영 하원의원과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

H-1B 연장신청도 신규처럼 엄격 심사

미국 근로자 보호에 우선해 결정
이번 지침은 즉각적으로 발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심사관들에게 H-1B비자 연장 신청도 엄격한 정밀심사를 적용토록 지시했다.

이민국은 10월 23일 이메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정된 신규 지침은 I-129 비이민비자 신청 양식을 사용하는 모든 비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상원에 의해 인준된 이민서비스국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은 "이민국 심사관들은 이민체계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 선두전선에 있다"면서 "이번 새로운 지침은 미국내 근로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지침은 취업비자 신청자가 연장신청을 했 ▶▶4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가 한인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매사추세츠 첫 한국의 날 기념식 주청사에서 MA 주청사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한인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0월 26일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으로 한국의 날을 선포했다. 첫 한국의 날 선포 기념식 자리에는 300여명이 좌석을 꽉 메워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주최로 매사추세츠 주청사 2층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한국의 날 기념식은 많은 주정부 관계자들이 한인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매사추세츠 주청사에는 매사추세츠주가 설립한 이래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방문해 한인들 바로 여기 매사추세츠 주에 존재함을 보였다. 매사추세츠주가 한인을 기억하는 방법이 이제 바뀐 것이다.

기념식은 NBC보스톤 조나단 최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NBC보스톤 설립과 함께 보스톤에 온 조나단 최 기자

는 누구보다 매사추세츠 한인들을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중의 하나다. 그는 아내에게 배운 한국말로 인사한 후 특유의 뉴스톤 목소리로 거침없이 순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많은 한인들과 내외빈들이 한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비수기 최저가
인천행 항공권 \$889.00

미세부 3대개년 패키지 \$470~

1인 요금 12월 1일 사용가능 / 4박5일 / LA 소인 / 정항공 포함

IACE TRAVEL
www.iace-korea.com
1.617.424.8956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tvN, OCN, Olive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매사추세츠가 한인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 1면에 이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경해 회장은 “한국의 날 행사를 위해 크게 기여해 준 태키 찬 의원과 도널드 왕, 로디 맘, 게이코 오렐, 폴 슈미드 의원 등에게 감사한다” 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엄총영사를 대신해 축사를 전한 권성한 총영사는 매사추세츠 한인의 유래가 19세기 유길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매사추세츠의 뛰어난 비즈니스 환경과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인 기업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한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과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장관은 각각 보좌관 및 재무차관이 한인 2세란 공통점을 가져 이들의 참여에 한인 2세들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것이 파악됐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은 “나의 보좌관 샘현에게 한국의 예절과 아시아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운다” 며 한국의 날을 축하하고 샘 현 보좌관의 모친이 생일이라며 어머니를 언급하

기도 했다.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장관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아시안들의 우수함을 지적하며 한국의 날을 축하했다. 골드버그 장관도 세라김 차관 모친을 직접 호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가오는 날씨와 교통상황으로 인해 약간 늦은 미셸우 보스톤시의회의장은 “이렇게 많은 아시안들을 주청사에 만나게 되어 기쁘다” 며 축사를 전했다.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데고 전 보스톤시장 비서실장은 약간 늦게 도착해 한인들과 인사하며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군, 김문소, 김양길, 양미아, 성기주, 이용재 등 시민협회 이사진과 남궁연 전한인회장, 안병학 강원총연회장, 김우혁 향균회장등과 미치 일본총영사가 참여했다.

소프라노 나유선씨는 애국가 및 가곡연주를 했으며 정은혜씨가 피아노를 김하나씨가 플루트를 연주했다. 김도연씨가 가야금 연주를 그리고 차수진, 김서진, 리새나, 리선 토미 등의 6-17세의 학생들이 박찬의 선생의 지도로 부채춤을 선보였다.

editor@bostonkorea.com



한국의날 선포서를 전달 받고 포즈를 취했다. (좌측부터) 태키 찬, 로디 맘, 폴 슈미드 하원의원,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장관 이경해 회장, 게이코 오렐 하원의원,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 도널드 왕 하원의원



축사를 하는 이경해 회장(사진위),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원 보좌관 새무얼 현(사진아래)



한국의 날 기념식이 열린 그레이트 홀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5인 이상 사업체, 직원 오바마케어 가입시 1인 \$750 벌금

매스헬스 수정안 2018년부터 발효, 고용주 포함 5명 이상 풀타임, 분기당 \$1500 이상 파트타임도 직원으로 해석 특히 영세 사업주들에게 타격이 집중될 듯, 고용회피도 아직 구체적 시행령 없어 약간의 변화 가능성 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소규모 사업자 중 풀,파트타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매사추세츠 주 신규건강법안에 따라 벌금부과 대상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수료를 가입 직원 1인당 \$750씩 부담해야 한다.

2018년부터 발효되는 매사추세츠 건강법안 수정안은 지난 8월 1일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해 법제화 됐다. 이는 1백 90만명의 저소득 매스헬스 대상자들 비영리적자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해 약 2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2018, 2019년까지 적용되며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 법안은 첫째 직원당 매년 부과하는 사업주의료보조금(EMAC)을 현재 \$51에서 \$77으로 올리며, 둘째 직원중 매스헬스에 가입했거나, 직장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탄 직원에게 1인당

\$750씩 부과한다. 한인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원 벌금이다. 특히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에는 이 벌금이 적용된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고용주 포함 풀타임은 물론 해당 매년 13주동안 주당 하루 이상 일하며 분기별 \$1500 이상을 받는 파트 타임 직원도 포함된다. 이들 직원중 매스헬스에 가입했거나 헬스커넥터에서 오바마케어를 구입하는 경우 직원당 \$75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풀, 파트타임을 포함하는 경우 직원 규모가 5명이 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상당규모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도 이번 법안에 의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서 고용주 부부가 동시에 일하고 분기별 \$1500 이상 받는 파트타임 직원 3명을 고용한 업체는 적용대상이다. 영세한 사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수료를 가입 직원 1인당 \$750씩 부담해야 한다

업체의 부부가 헬스커넥터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직원 중 2명이 헬스커넥터 건강보험을 이용중인 경우 내년 총 \$3000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정된 범조항은 매사추세츠주법(Massachusetts General Laws) 149장 189A 섹션에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미 언론들은 지난 8월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벌금의 적용범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단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탄 직원들에 대한 벌금이라고만 지적했었다.

한가지 기대해볼 만한 것은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는 “주의료보조부 및 헬스커넥터와 상의 하에” 사업자 신규 벌금 시행령을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었던 직원들 중 오바마케어 수혜자에 대한 벌금 부과 여부 등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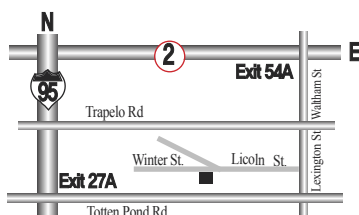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7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9, 2017

| Class | Time |
|---|---|
| PSAT/SAT I Prep 9/9/17 open | 9:00 AM – 11:00 AM 11th Grade |
| PSAT Prep 9/9/17 – 3/3/18 | 1:00 PM – 3:00 PM 9th/10th Grade |
| SAT I Prep 9/9/17 – 11/25/17 (as needed) | 3:30 PM – 5:30 PM 12th Grade |
| SAT II Prep 9/9/17 – 11/25/17 | 6:00 PM – 8:00 PM Subject Tests 10th/11th/12th Grade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한인 주요 정치 및 사법계 스타들 총 출동한다

NE 시민협회 제 4차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엄 컨퍼런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주류 정계 및 사법계에 진출한 한인들과 아시아인들이 총 출동해 트럼프 시대에 이민자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의에 대해 토론한다.

뉴잉글랜드시민협회가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버드 법대 WCC 빌딩 EastB에서 주요 정, 사법계 스타들을 초청해 “제 5차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주차는 물론 저녁까지 제공한다.

이번 컨퍼런스 초청연사로는 보스톤 지방법원 한인판사 전명진, 병커힐대학 총장인 아시안계 팸 에딩거, 커먼웰스 세미나 국장 레버렛 워, 매사추세츠 주 들리오 하원의장 한인보좌관 사무



작년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다니엘 고 전 보스톤시장 비서실장

엘 현 등이 총 출동한다. 또한 보스톤 월시 시장의 전비서실장이며 한인계 연방하원으로 출마하는 다니엘 고도 특별 초청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내 소수 민족이 직면한 부당성과 우리의 개선 과제(How to Address Injustice Towards Minorities in America)” 를 주

제로 심도있는 강연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티븐서 시민협회 사무총장 info@kacline.org, 혹은 행사위원장 추경석 kccb030@gmail.com, 이경해 회장 508-962-2689 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H-1B 연장신청도 신규신청처럼 엄격 심사

▶▶1면에 이어서

을 경우 신청고용주와 수혜인 그리고 기타 사실이 과거 승인 때와 변한 게 없다 하더라도 심사관들은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수준의 철저한 심사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정책은 과거 승인 결정에 있어 사기나 증거자료 오류 등이 발견되지 않고 신청인과 수혜자의 주요 요소가 변하지 않는 한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이민국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궁극적으로는 승인해주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승인하지 않고 항상 자격증명의 의무를 신청인에 지우는 것을 자동적인 시작점으로 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관은 각 신청건을 미국 근로자 보호에 우선해 결정하고 신청자가 충분한 증거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자료요구(RFE)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번 내부 지침 메모는 바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한편 송동호 변호사는 지난 주 보스톤코리아 칼럼(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통해 “자체 이민팀의 분석에 의하면 이민국은 전체 H-1B Cap 케이스들 중 약 83%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라며 H-1B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지적했었다.

이번 지침으로 신규 신청건은 물론이고 H-1B 연장건에도 급격한 제동이 걸려 취업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포가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hsb@bostonkorea.com

옥동석 로드아일랜드 노인회장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옥동석 로드아일랜드 노인회 회장이 10월 2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 옥동석 씨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장, 로드아일랜드 골프협회장, 한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하게 한인사회에 참여했다. 이복5도민회 사무총장을 역임기도 했다.

이동수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

위원장에 따르면 “고 옥동석 씨는 골프를 엄청 좋아해서 로드아일랜드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고 기억하며 “가까이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울하기 그지 없다” 고 애도했다.

고 옥동석 노인회장은 뉴포트 쪽 병원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하다 은퇴했다. 부인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웨이크서비스는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며 장례식은 28일 토요일 10시 열린다. 유해는 Newport Memorial Park에 안장된다. 장례식장은 Connors Funeral Home (55 West Main Rd., Portsmouth, RI 02871) (401) 683-2511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가을맞이
특별 프로모션
11월 5일까지**

행사 1



FREE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홍삼정 120g 2개 구입시도
같은 프로모션 적용

행사 2

10% OFF

**홍삼 추출액 구입시
(지삼, 양삼, 절삼)**



그동안 6년근 홍삼을 사용하여 110여년의 축적된 기술로
푸리삼 내용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 홍삼 제품입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전까지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북미주 강원도민회 뒷풀이 시간 들여다 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컬 한인신문에서 행사취재는 권투로 치면 의무방어전과 같은 것입니다. '기사거리'로서 매력 보다는 한인 사회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무감에서 접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1부 기념식에 집중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됐고, 무엇을 했으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축사를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주요 인사중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중요하지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중복의 연속, 매력이 덜합니다.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들도 단체장님들과 평통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행사에서 보고 저행사에서 다시 만납니다. 1부 기념행사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식사가 진행되고 식사 후에는 노래방 또는 댄스 시간이 이어지는데 보통 취재는 밥을 먹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집을 챙길 시간인거죠.

21일 토요일 저녁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 친구회장 위취임식이 로렌스에서 열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늦어 평시같으면 집을 싸야할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기념식도 끝났고 식사

까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왕 늦은 것 취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 이민사회 속의 강원도민회는 어떤 모습인지 뒷풀이 시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스톤 도민회 분들과, 뉴욕분들이 지리 여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멀리 라스베가스는 물론 애틀랜타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원도민회의 뒷풀이는 안병학 회장의 고향 친구인 김영수 씨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비록 프로는 아니었지만 아마추어로서는 아까운 실력. 섹소폰 연주며 구수한 입담으로 보아 적어도 강원도민회 행사 뒷풀이 만큼은 이분이 계속 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 진행을 경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느낀 것은 참 흥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척 봐도 연식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분들인데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정말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한 두명이 일어서 춤을 추면 상당수의 분들이 함께 나가 리듬을 탔습니다. 보스톤 강원도민회 패셔니스타 정명철 님은 흥이 정말 많고 춤도 잘 추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리

듬이 몸에 잘 붙지 않았지만 넘치는 흥까지 떼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위기가 고조됐던 것은 아닙니다.

신임 안병학 총연회장은 확고한 노래방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체 분위기를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 확 바꿔놓았습니다. 조금 주눅이었던 분들도 수줍음을 무장해제 하고 무대로 달려들게 했습니다. 전체 회원을 아우르는 모습은 일단 역시 리더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병학 회장이 노래 무대에서 보였던 리더십을 현실 공간 즉 강원도민회 총연합회로 확장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강원총연은 추진력의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원래 보컬그룹 소리사냥 출신의 박천우 보스톤 강원도민회 신임회장은 앵콜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서울설렁탕, 서울 떡볶이 사장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박수균 전경제인 협회 회장은 "남들이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실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민 1세대의 회한이었



박천우 보스톤 강원도민회 신임회장



안병학 신임 총연회장



강원도민회의 뒷풀이는 안병학 회장의 고향 친구인 김영수 씨가 진행을 맡았다

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연세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한 보스톤 한인인 "여기에 젊은 사람은 없어요?"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총연 사무총장을 비롯해 40대로 보이는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강원 총연 뿐만 아니라, 미 이민사회의 고령화는 이미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이민1세대의 정서

가 듬뿍 담긴 모임 또한 나이가 점점 들어가 어느 순간에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임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은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 테이블이 넘었는데 어느덧 모두들 한 테이블로 모여 앉아도 의자가 남았습니다. 취재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음악 뒤의 감정이나 메시지를 깊이 파고 들어 최상의 테크닉으로 음악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11월 4일 연주를 앞두고 있는 파커 퀼텟 인터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파커 퀼텟, 음악을 듣지 않았어도 왠지 청량감 있는 느낌이 밀려든다. 이 름처럼 연주도 느낌이 좋을까. 일단 그 래미는 그렇게 인정했다. 2011년 베스 트 클래식 연주 부문의 그레미상을 이 들에게 선사했다. 파커 퀼텟(Parker Quartet)의 연주가 11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조 단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이들은 모차르트 와 프로코피에프의 현악4중주곡을 연 주하며, 피아니스트 김정자 교수 및 베 이스 연주자 찰스 클레멘츠와 함께 슈 베르트의 현악5중주곡 “송어” 를 연 주한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 현악 5중 주로 송어를 듣는다는 것은 삶의 기쁨 이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상주 퀼텟 (Quartet-in-Residence)으로 활동하 고 있는 파커 퀼텟의 첼리스트 김기현 씨와 이메일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 질 문 및 정리는 예술협회 수상원씨가 담 당해 진행했다.

Q: 파커 퀼텟은 2002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 멤버들이 모두 학생이었는데? 4 명이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시 작하게 되었는지?

A: 그렇다. 네 명 모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저런 친구 관계 로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그룹으로 연 주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 로 시작했다. 그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직업(career)으로 발전하게 될 줄은 전 혀 몰랐었다.

Q: 어떤 이유로 ‘파커’ 라는 이름을 지었나? 그룹이 처음 생겼을 당시의 목 표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지금의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그룹이 성장해 오 면서 영향을 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가?

A: 우리의 이름은 보스톤 시내에 있 는 역사적, 문화적 장소인 ‘파커 하우스(Parker House)’ 에서 비롯된 것이 다.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의논했는데, 파커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느낌과 소리가 좋아 서 선택했다.

그룹의 목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 우리 자신보다는 음악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항상 진실하 며 품위있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 최상 의 테크닉으로 연주하여 음악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음악과 오늘날의 음악을 망라하는 새 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 등이다.

우리는 그 동안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연주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함께 한 시간은 짧았어도 음악을 대하는 자세, 예술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전반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헝가리의 작곡가인 죄 르지 쿠르탁(György Kurtag)과 피아 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Menahem Pressler)가 기억난다.

Q: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상주 퀼텟 (Quartet-in-Residence)으로 4년 째 활 동하고 있고, 다른 학교와 단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해왔다. 상주 퀼텟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 었는지?

A: 하버드 대학교 음악학부의 상주 퀼텟으로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의 하 나는 실내악 코스를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실내악 그룹을 만 들어 매주 우리에게 코칭을 받기도 하 고 스튜디오 클래스를 하거나,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대해 페이퍼를 쓰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학기 말에는 이 곡을 청중들 앞에서 연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선택한 곡을 깊 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페인홀 (Paine Hall)에서 일 년에 네 차례 연주를 하고, 음악학부의 다른 강의들을 방 문하고, 특히 작곡 수업에 참여하여 학 생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학 기 말에는 그들이 쓴 작품을 연주한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 민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좋다. 하버드에서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에 너지, 그리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세가 우리의 창조적인 작업을 항상 새롭게 해준다.

Q: 21세기에 클래식 음악가/현악4중 주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 는지? 파커 퀼텟이 롤 모델인 어린 음악



가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A: 이걸 좀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먼저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열 정과 존경심이다. 그리고 또한 집중과 훈련이 필요하다. 테크닉을 마스터하 고 갈고 닦는 한편, 음악 뒤에 있는 메 시지나 감정 등을 깊이 파고 들어야 한 다. 또한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음악이 나 아름다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 다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언제나 뭔 가 다른 것 또는 기대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넘쳐 나는 요즘 시대에는 “성공적인 음악 가” 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자신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여 러 방면에 대해 계속 궁금해 하면서 현 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 음악가가 많이 있지만,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하는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음악을 통해 뭔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훨씬 더 많다. 자신의 음악이 다른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라.

Q: 11월 4일 공연은 보스톤 한미예술 협회와 중국공연예술재단에서 주최한 다. 이들 커뮤니티에 전하고 싶은 말은?

A: 보스톤의 한인 커뮤니티 앞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 하다. 이번 연주에는 모차르트, 프로코 피에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슈베르트의 “송어” 가 프로그램 되 어있다.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고, 명쾌 한 곡들이니만큼 좋은 시간이 되실 것 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오셔서 즐겨주 시면 좋겠다.

파커 퀼텟 연주회
일시: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던 홀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티켓 구매 및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781-223-4411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짜라시 토크 5



이거 실화냐?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협찬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후원사 협찬을 통해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과거 상냥했던 백인들이 갑자기 차거워진 이유

기자1=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NFL을 예로 들겠습니다.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애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는 것을 비난한 후 공화당 유권자들의 견해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무려 한달전 NFL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졌던 게 20%였는데 10월말 들어 60%로 확 높아졌습니다. 본질은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인데 애국심의 문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류언론을 '가짜뉴스' 라고 공격한 후 미국인의 46%가 그리고 공화당원의 76%가 주류언론이 기사를 조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



럼프는 계속 이민자들이 '범죄자'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걸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2= 최근들어 아이들 학교에서 과거에는 친근하게 말을 건네던 미국 백인들이 최근들어서는 간단한 눈인사만 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들으니 이민자들에 대한 견해가 최근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1= 물론 과민반응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차거워진 미국인이 있다면 그렇게 봐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과거 한국 군부정권을 보는 듯 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이면 중북 또는 좌파, 빨갱이라고 갈라쳐서 정권의 안보를 담보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기자3= 트럼프가 미국을 1960년대로 돌려놓았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의식이 깨어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한국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의식수준이라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노스앤드에서 3시간에 단 3볼로 주차하기
기자2= 날씨가 좋았던 지난 토요일 노스앤드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스앤드에서 주말 주차는 늘 힘들어서 고가의 주차장에 주차하



거나 거리 주차를 찾아서 몇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보스톤퍼블릭마켓 빌딩 위 주차장은 보스톤 퍼블릭마켓에서 아무 상품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구입하고 할인증명(Valid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시간이면 2볼, 세시간이면 3볼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자1= 최근에는 보스톤 거리주차도 차량의 수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는데 거리 주차보다도 저렴하군요. 저는 Parkboston 앱으로 주차하는데 정말 편리하긴 합니다. 다만 거리주차를 구하기 쉽지 않고 보스톤퍼블릭마켓 주차장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기자2 = 저는 보스톤퍼블릭마켓의 유니온도넛에서 도넛을 사고 벨리데이션을 받았습니다. 도넛위에 베이컨을 올려주는 것인데 잘 안 어울릴 것 같았지만 정말 오묘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이마켓의 과일들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물론 일부 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빅덕으로 생긴 케네디 그린 웨이는 이제 완전히 공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거기를 산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달은 한인업소들
기자1 = 한인업소들 중에 최근에 문을 닫은 곳이 있습니다. 벨링턴 H마트 앞에 위치한 재능교육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하버드스퀘어 JFK 스트리트 '사부야' 에 이어 진출했던 가주 순두부가 여의치 않아 문을 닫고 켄모어 스퀘어로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준비중이며 다음달 정도면 문을 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BU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야구장 갔다가 순두부를 먹을 수 있어 좋겠네요. 물론 가주순두부 울스톤점은 아직도 성업중입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만찬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지난 10월 22일 저녁에 웰슬리 대학교 클럽에서 제6회 모금만찬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 만찬에는 권성환 부총영사, 이종섭 영사, 이경해 시민협회장,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비롯하여 로추아치 미치 일본 총영사, 중국 문화재단 대표 캐시 찬 등 70여 명의 예술인과 후원자가 모여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모임은 베네주엘라 출신 칼로스 카파초의 전통악기 콰트로와 노한나의 키보드 연주로 시작되었다. 정정욱 이사장의 감사의 인사말에 이어, 이스트 보스톤 세이빙스 은행의 리처드 가베그나노 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보스톤에서 한인사회와 미국 및 타 문화를 음악, 미술, 문학으로 연결시키는 협회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했다.

젊은 화가 소개 시간에는 김사울 작가가 자신의 꿈과 연결된 작품세계를 소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지난 10월 22일 저녁에 웰슬리 대학교 클럽에서 제6회 모금만찬을 성황리에 열었다

했으며, 김병국 회장은 지난 행사들 보고 및 11월 4일에 있을 그래미상 수상 퍼커퀼렛과 김정자 교수의 컨서트 등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해의 이벤트를 담은 비디오를 모두 감상하였다.

모금만찬과 병행하여 진행된 미술품 경매 (주관 이재욱)에는 올해에도 지역 예술가들의 지원이 쇄도했다. 피터 헤인즈, 유수례, 김영아, 김사울 등 많은 외국인 지역 도예가, 조각가, 화가와 사진작가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협회에 기증하

였다. 래플 상품으로는 서울설렁탕, 영취루, 한국가든, 메주 등에서 후원한 푸짐한 사은권 등이 있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정정욱 이사장과 김병국 회장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보스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만찬 참석자 및 지속적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중국 유학생들, 사드 배치 한·중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인들도 사드 보복 완화로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었다고 생각할지, 현재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감정은 어떨지, 한·중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보스톤 내 중국 유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양국간의 조심스러운 문제인 만큼 중국 유학생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알린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인터뷰는 중국 학생들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진행된다. 왕 씨와 장 씨는 남성이고 큰 씨는 여성이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만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의 정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아직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지만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커다란 유행행위라고 느끼고 있었다. 일말의 배신감까지 느껴졌다. 사드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한·중 관계를 좌우하는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 중국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큰

래 들어 한·중간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중국 유학생들 사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하지만 질문처럼 한·중 간의 정치·외교적 부분에 한해선 개인적인 의견은 없다. 두 나라가 서로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정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 모르고 있었다.

큰: 모르고 있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된 것으로 보는지?

왕: 그렇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남한 간의 갈등으로 한·중 국가 관계도 악화되었지만 중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배포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장: 사드 보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은 최근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의 실익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큰: 사드는 중국 내 큰 관심거리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시스템이라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도 일정 이해가 간다.

장: 개인적으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 중국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군 사적 힘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가만했을 때 한국 ▶▶9면으로 계속

한정희씨, 뉴베리포트 갤러리 2017년 최고작품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NH에 엑시터에 거주하는 한정희(Cellilia Oh)씨의 "Night of beach" 작품이 뉴베리포트갤러리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2017년 최고작품상으로 선정됐다. 한정희 씨는 최고작품상인 '해변의밤'과 다른 한점을 출품했으며 이 그림은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한정희 씨는 1984년 뉴욕 FIT에서 섬유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수채화(Water Color)를 그린 것이 전부로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시작한 작가다. 이번이 첫번째 입상으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5년 전부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인 세탁소

에서 일하면서 틈틈히 작품을 그려 세탁소에 전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구입해 상당수의 그림을 판매해왔다.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미국생활이란 게 일을 하면서 또 애를 키우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했다.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림을 시작했다."

첫 대상작인 "Night of beach"는 갤러리 전시가 끝나기도 전 작가가 선정한 가격 \$600에 이미 판매됐다. 한정희 씨는 "좀더 높게 책정해서 소장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또 누군가 첫 대상작을 구입해 갔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다" 고 밝혔다.



한정희작가

한정희 씨의 작품은 세탁소에 전시되어 인기리에 팔리면서 햄튼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내 중국 유학생들에게 들어본 한·중관계

▶▶8면에 이어서

입장에서 사드를 배치한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문: 반대한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오랫동안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 이점 때문에 일부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추가 방어시스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다면 중국의 방어시스템 또한 한국을 방어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 한국의 입장에서 이점이 불리하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반도 내 사드 추가배치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새로 시스템을 배치하며 중국이 외교적으로 흥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노코멘트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 한국 드라마, 연예인, 기업 등 중

국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두 나라간의 관계가 잘 개선되었으면 한다.

장: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은 좋다.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며 한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문: 비록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은 좋다. K-pop, 한국 드라마 등 즐겨보며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중국 내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왕: 한국보다는 중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시아까지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견제라고 생각한다.

장: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미국 이하라는 것만 따른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서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내 학생들은 별다른 생각 차이가 없다.

문: 중국 내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와 K-pop에 매우 관심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kbk@bostonkorea.com

오해하기 쉬운 D.I.Y.(Do It Yourself) 미국문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권조이 기자 = 미국이란 나라는 전세계 각국에서 온 수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자들은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미국의 생활을 더욱 다양하고 특이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제적인 나라가 된 것이기에 문화, 관습, 국민성이나 가치관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자기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익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일반적인 미국문화 중 하나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 만나면 항상 절 혹은 악수로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미국에서는 서로 편안하게 대하기를 원하며 상대방과 친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옹을 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스몰 톡 (small talk) 이란 소소한 대화를 좋아한다. 상대방이랑 눈만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로부터 시작하고 짧은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인사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스몰 톡을 시작한다.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황할 일만 아니다. 때로 불필요하게 개인적 신상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적절

하게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해도 좋다.

또 하나는 호칭을 부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나이에 따라서 명칭을 제대로 부르는 예의가 있지만 미국은 나이 상관없이 호칭을 쉽게 부른다. 한국 문화와 반대로 자기보다 나이 더 어린 사람이 boy, girl, buddy, dude, guy라는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예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고 아주 무례한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하게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다. 당연히 사람을 부르는 더 정중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미국 문화의 단면이기에 한국처럼 (존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 팩트(fact)는 한국에서 손가락을 위로 세우고 까딱까딱 거리는 것은 동물을 부를 때나 싸움을 걸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라 오해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손으로 흔하게 부르는 행동이다.

한국인들은 가족간의 연대나 조식에 충실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성과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 문화에 비해서 이러한 것이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존감과 독립성은 개인에 대한 존경심과 연관된 것이다. 독립을 뜻하는 '자신의 두 발로


서라' 는 속어처럼 미국인들은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 부모의 바램을 없이 학교 전공 고르기, 직업 찾기, 일상생활 만들기 또한 결혼 계획하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 사회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도 한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성공과 실패에 시선이 다르다. 미국사람들의 경쟁심은 한국사람들처럼 아주 많이 있지만 성공까지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다르게 본다. 대부분 인생에 성공하려면 좋은 집에서 나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은 성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성공 측정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실패에 나쁘게 보지 않고 아무리 실패해도 올바른 방식도 배워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노력을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실패에 두려워하고 성공까지 가는 길에만 신경을 쓰인다. 또는 외모지상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예쁘거나 잘 생겨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까지 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하지만 내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오늘 위해서 사는 것이 더욱 좋다.

jvlgwon1197@bostonkorea.com

권조이 기사는 미국인 여대생이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이며 현재는 잠시 휴학중이다. 보스톤이 고향이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보스톤한국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운 후 연세대에 진학해 화제를 나갔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미국인의 시각이지만 한글로 글을 쓸 예정이다(편집자주).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아마존 집안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시행 예정

집에 사람이 없어도 문 열고 들어가 배달 와이파이 연결되는 카메라, 자물쇠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이 집 밖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아마존에서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포를 집 안에 놓고 오는 배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아마존은 지난 25일, 아마존 키(Amazon Key)라고 이름 붙여진 배달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 키 서비스의 핵심은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배달부가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에 소포를 놓고 배달을 완료하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아마존 키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셜 미디어의 반응은 뜨겁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아마존 배달부가 침입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충분한 명성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젊은 소비자들은 낯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런 서비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존은 키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려는 아마존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아마존 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아마존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아마존 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또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카메라와 자물쇠를 아마존에서 구입해야 한다. 카메라와 자물쇠를 구매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250달러다. 아마존 키 서비스는 아마존 앱을 통

해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마존 배달원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선 집 현관을 두드리고 소포를 스캔한다. 아마존은 배달원이 정확한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집 자물쇠를 연다. 특별한 비밀번호나 열쇠는 필요 없으며 집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실내로 배달되는 과정을 녹화한다.

이 모든 과정은 아마존 클라우드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녹화도 가능하다.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 아마존 파이어 티브이, 비디오 스크린이 있는 에코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아마존 키 실내 배달 서비스는 11월 8일부터 미국 내 37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jsi@bostonkorea.com



아마존에서 시행할 실내 배달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볼 수 있고 녹화도 가능하다



117년이 된 찰스타운 브릿지가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임시 통행이 중단되었다

찰스타운 브릿지 긴급 보수 공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스타운에 위치한 유서 깊은 교각이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잠시 통행이 중단됐다. 노스 워싱턴 스트리트 브릿지(North Washington Street Bridge)에서 두 개의 커다란 괄호 때문에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손상된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노스 워싱턴 스트리트 브릿지는 24일 저녁 6시경부터 통행이 중단됐다. 마티 워시 보스톤 시장은 긴급 보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밤 10시 경에 다리의 통행이 재개되

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에 따르면 노스 워싱턴 스트리트 브릿지는 건설된지 117년이 된 다리다. 이미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었으나 계속 차량 운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다리는 지난 수 년 동안 몇 번에 걸쳐 긴급 보수 공사를 받아왔다.

교통부는 노스 워싱턴 스트리트 브릿지를 포함해 노후한 교각과 고속도로 보수 공사를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5,0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월그린스 매장 600여곳 문 닫을 예정

라이드 에이드 매장 인수 후 일부 매장 폐쇄 내년 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내 최대 의약품 판매 회사인 월그린스(Walgreens)가 자사의 매장 중 약 600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최근 라이벌 회사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로부터 43억 8천만 달러를 들여 2,000여 곳의 매장을 인수한 직후 매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클 풀진 월그린스 대변인은 25일, 매장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문을 닫을 매장은 대부분 라이트 에이드 매장이라고 밝혔다. 새로 인수한 라이트 에이드 매장 중에서 반경 1마일 이내에 다른 월그린스 매장이 있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월그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장이 문을 닫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월그린스는 지난 달 말에 라이트 에이드 매장 인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월그린스는 라이트 에이드 매장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 공을 들여 왔지만 번번히 정부가 제동을 걸어 왔다.

연방 공정거래 위원회는 업계 1위인 월그린스가 업계 2위나 3위의 회사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여 월그린스의 라이트 에이드 인수를 막아 왔다. 월그린스는 라이트 에이드의 전체 인수, 라이트 에이드 매장의 절반 인수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는 라이트 에이드 매장의 절반에 못 미치는 1,932개 매장 인수만을 승인했다. 월그린스의 라이트 에이드 매장 인수는 내년 봄까지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월그린스의 매장 폐쇄 계획은 라이트 에이드 매장 인수 절차의 일부이다.

월그린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13,200여 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jsi@bostonkorea.com



미국 내 최대 의약품 판매 회사인 월그린스(Walgreens)가 자사의 매장 중 약 600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北, 북미 오슬로 회의 돌연 취소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북한이 이달 하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계획한 북미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26일 일본 J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선희 외무성 북미 국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오슬로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만남을 거부하면서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은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한미 군사 훈련을 문제 삼아 만남을 취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고강도 연합 훈련을 전개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핵비확산 국제회의의 참석차 방문한 모스크바에서 지난 20일 "핵무기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했다.

이번 북미 접촉은 무산됐으나 양국 간 물

밑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국장은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연설에서 "북미 간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의 미국 측 대표였던 조셉 윤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 의회와 국무부, 백악관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최근 "첫번째 폭탄 투하 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강한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에 '대화 채널 재가동'을 원한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yjw@news1.kr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

北, 태평양상공 핵실험, 글자그대로 받아들여야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북한 고위관리가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리용필 외교관은 평양에서 가진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강력한 수소 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받을 경우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리 외교관은 "리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과 미국 간 외교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동안 북미 채널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외교관은 "미국은 군사우선을 고려하고 있고 심지어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제재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외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jjtan@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이민천국 캐나다...5명 중 1명은 이민자

5년간 120만명 유입...대부분 숙련 노동자 아프리카까지 이민자 출신국도 다양해져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캐나다에 거주민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인구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캐나다 통계청은 이날 2016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캐나다에 유입된 이민자는 120만여명. 대부분 숙련 근로자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이민자 출신국도 다양해졌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36년엔 전체 인구의 36%가 이민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구 구성이 다양해져 전체 인구의 35%가 가시적인 소수 인종 집단(visible minority)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 인구의 46%가 이민자이며

51%는 소수 인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다. 1951년에서 1991년 사이엔 이민자 비율이 14.7%까지 떨어졌지만 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숙련 근로자가 유입되는데, 이는 캐나다의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전체 가족 이민의 30%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yjyj@news1.kr



지난 7월 캐나다 건국 150주년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

트럼프, 난 아이비리그 출신인데...언론이 이미지 왜곡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자신은 아이비리그(미 북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이라며 언론이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언론이 나를 실제보다 더 무례한 것처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학생이었고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다. 언론이 실제와 다른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68년 아이비리그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을 졸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이 "가짜 기사"와 "많은 나쁜 것들"을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매우, 엄청난" 단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부분 언론에 잘못이 있지만 정치는 힘든 일이다. 이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jjtanyjyj@news1.kr

중간선거 두려운 공화당, 매킨도널 중심 반배년 연대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내년 중간선거를 둘러싸고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짜짓기와 개별 행동, 그리고 내외부 적(敵)을 판별하고 방어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밥 코커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에 이어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지난 25일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반(反) 트럼프 세력들도 일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특히 미치 매킨도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들은 당 외부의 적 스티브 배년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상대로 세를 가다듬었다. 공화당 지도부와와의 전쟁을 먼저 선포한 이가 배년 전 전략가이긴 하다.

'원래 반 트럼프'로 알려진 매킨도널 원내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을 과시하는 등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반대 성향을 다소 접어둔 상태다.

미치 매킨도널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는 슈퍼팩(Super PAC; 선거자금 후원 모임) '매킨도널 관련 상원 리더십 펀드'(SLF)는 배년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시작할 계획을 수립했다. 배년이 백인 우월주의 자라는 점, 강력한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라는 점을 드러내 신임이 떨어지도록 하려는 것. 이와 함께 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 등을 문제삼고 반감을 피력하고 있는 이들이 더 늘



미치 매킨도널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

어나지 않게 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배년 전 전략가의 '대리전'으로 불렸던 지난달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 후보인 현역 루서 스트레인지 상원의원이 배년이 밀었던 로이 무어 전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에게 패하는 일도 있었다.

애리조나주도 배년 손에 넘어갈 공산이 없지 않다. 플레이크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켈리 위드 주 상원의원은 일치감치 배년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배년이 설립한 극우 매체 브레이크바트 뉴스 출신 인물들을 영입한 켈리 위드 의원은 중간선거에 나설 의향을 공표했다. 크리스 맥대니얼 미시시피 주 상원의원도 배년측의 승인을 얻고 현직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에 맞설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매킨도널 대표에 대한 지지는 다소 약해진 상태다. 브레이크바트는 최근 하버드대-해리스 조사를 인용, 공화당원의 56%가 매킨도널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s91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스 돈내고 보는 美 청년들 크게 늘었다

넷플릭스 등 구독경험이 유료 구독에 영향 "뉴스는 자신의 가치와 성향 찾는 브랜드"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뉴스(콘텐츠)는 돈 내고 보는 것"이란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21일 폴리티코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 출생) 젊은이들의 신문 등 올드 미디어(legacy media) 유료 구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하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넷플릭스 등을 통해 유료 구독 경험이 늘어나면서 신문도 유료로 구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잡지 뉴욕커의 경우 신규 구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18~34세 밀레니얼 신규 구독자 증가율이 106%, 25~34세 청년층의 신규 구독자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디에틀랜틱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대선 이후 18~34세 신규 구독자(지면+디지털)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30% 뛰었고 18~44세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율은 70%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정확한 증가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WP는 "밀레니얼 세대의 신규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NYT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신문은 아닌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경우에도 지난해 학생 구독자가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18~24세, 25~34세 구독자들이 신규 구독자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젊은 구독자들의 신문 등 올드 미디어 신규 구독이 늘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번째는 "정보는 공짜"라는 인식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뉴스를 보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는 돈을 내려하지 않는다는 건 옛 얘기라는 것

이다. 넷플릭스나 훌루, 스포티파이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돈을 주고 질 좋은 정보와 뉴스를 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던 얘기다.

두 번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해마다 발간하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에 따르면 특히 미국에선 온라인 뉴스를 유료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2017년 발표된 유료 구독 증가율은 16%로 전년 9%보다 크게 뛰었다.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18~24세 밀레니얼들의 온라인 뉴스 유료 구독자 증가율은 4%에서 18%로 극적으로 상승했고 25~34세 유료 구독자 증가율은 8%에서 20%로 늘었다.

'2017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저자인 닉 뉴먼은 "미국 밀레니얼과 청년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벽(bulwark)을 치기 위해(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증거로) 뉴스를 유료 구독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정치 성향이 좌파로 분류되는 청년들의 경우 우파 성향의 구독

자들에 비해 저널리즘에 대한 의존도가 네 배 높았다고 뉴먼은 밝혔다.

디에틀랜틱의 매출성장 부문 헤드인 샘 로젠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젊은이들의 신규 구독이 늘어왔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 이후 구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노스웨스턴대학교 메릴 저널리즘스쿨의 스테파니 에절리 교수는 "브랜드 정체성이 신규 구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인 NPR의 경우 중대사건(big deal)을 담은 손가방이라고 여긴다면 뉴욕커는 '핫한 상품이 보이는' 손가방이라고 여긴다는 것.

에절리 교수는 "뉴스는 브랜드"라면서 "독자들은 뉴스를 통해 자신과 관련돼 있는 가치, 정치적 성향도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치란 자유주의적이나 보수적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생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에틀랜틱의 기사를 공유하는 것을 본다"면서 "그들이 그것을 공유할 때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914@news1.kr



애플, 양(量)을 위해 질(質)을 희생 안면인식 정확도 낮춰

(로이터=뉴스1) 민선희 기자 =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아이폰X 생산 가속화를 위해 아이폰X 내 안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낮췄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협력사들의 납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낮추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페이스ID (Face ID) 시스템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다. 휴대 전화를 응시하는 것만으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스ID 시스템은 아이폰X에 새로 도입된 대표 기능이기도 하다.

앞서 애플리스트들은 지난 9월12일 출시한 아이폰8 및 아이폰8+ 수요가 부진하며, 아이폰X 생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은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의 10주년 모델인 '아이폰X'는 다음 달 3일 출시될 예정이다.

baebae@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MBC 대주주 방문진 재판...고영주 · 김장겸 '퇴진 수순'

방통위, 26일 방문진 보궐이사 2인 임명...여야 5:4 구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가능해져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새로운 이사 2명을 선임함으로써 '여야 구도'가 5대4로 재편된 가운데, 사실상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이 다음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보궐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 12일까지다.

더보기 Click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방문진 이사회를 꾸려온 것이 관행이다.

앞서 지난 정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유의선, 김원배 이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 2명이 합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야간 3대6이었던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이제 5대4로 바뀌었다.

이사회 재편에 따라 가장 먼저 이뤄지는 일은 고영주 이사장 해임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에 현 여권 추천 이사 3인이 다음달 2일 열린 이사회에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방문진 이사회는 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여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9명의 이사 중에서 현재 여권 성향의 이사 5명의 찬성으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되고 난 후에는 방문진법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뽑고 이사장을 호선한다.

새 이사장이 오고 난 후에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4일부터 50일 넘게 총파업 중인 MBC 사태에 대한 책임을 김장겸 사장에게 따져 물을 것이 유력하다.

그간 김장겸 사장은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방문진 이사회와 압박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은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정부과천청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하는 모습

지난달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정하려는 계획은 잘못됐으며 외압에 의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사실상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KBS, EBS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도 파행을 겪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독단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사 사임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돼야 하고 이효성 위원장의 거취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7일 열린 예정인 방문진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여당은 고영주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sho218@news1.kr

日아사히,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아사히신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었다는 과거 보도 그리고 취소를 했던 것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지난 24일 아사히의 위안부 관련 보도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바(千葉)·야마나시(山梨)현

에 거주하는 독자 등 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사히는 지난 1982년부터 2차 대전 당시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사망)씨의 인터뷰 등을 기획특집으로 보도하면서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증언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었다.

그러나 아사히는 2014년 8월 '요시다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관련 기사를 모두 취소했고, 이에 일본 내에선 '장기간 오보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사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 아니다"면서 작년 9월 도쿄지방법판소의 1심 판결 및 올 3월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에

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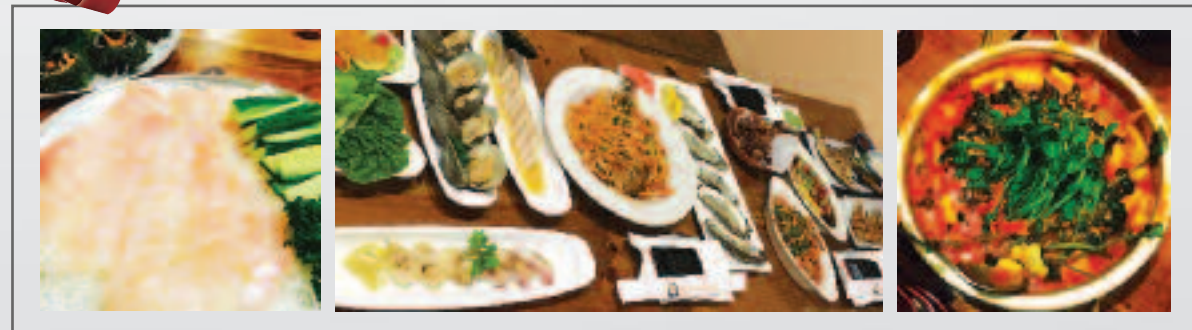
ys4174@news1.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27 - NOV. 2, 2017

PUMPKIN CROQUETTE No need to be creepy or gross on Halloween! Make this cute and delicious pumpkin croquette for your party!

H마트와 함께 만드는 할로윈 맛이 특별 간식! 맛과 영양 모두 만점인 단호박 크로켓을 만들어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1.49 lb.
- Purple Sweet Potato Hawaii \$1.99 lb.
- Kabocha 단호박 \$0.88 lb.
- Organic King Oyster 유기농 새송이버섯 \$3.99 8oz./pkg.
- Hami Melon 하미멜론 \$1.49 lb.
- Nagaimo 일본 마 \$4.99 lb.
-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16oz. \$0.99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 California Fuyu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12.99 box
- Lotus Root 연근 \$1.88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육두께 \$6.99 lb.
- Whole Chicken 통닭 \$1.49 lb.
-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대찌*육살 \$4.99 lb.
- Beef Flank Steak 안치마양지*(육계장) \$6.99 lb.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상견 양지*슬라이스 \$6.99 lb.
- Marinated Beef Ribeye Steak 양념*벌집 스테이크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Head-On Louisiana Shrimp \$6.99 lb.
- Cooked Whole Clams 백합조개 \$25.99 1 lb./pkg.
-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절단*꽃게 \$6.99 2.5 lb./pkg.
- TONG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알배기*참조개 \$14.99 400-600's - 4 lb./pkg.
- Half-Shell Mussels 반갠*홍합 \$6.99 1.5 lb./pkg.
-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산*활생어 \$14.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ng Gi Medium Grain Rice \$24.99 40 lb.
- I WANT Bath Tissue \$11.99 2000/pkg.
- KADOYA Pure Sesame Oil \$14.99 568 oz.
- DONGSUH Maxim Coffee Mix \$12.99 1000g/5.3oz.

Trick or Treat Spooky SAVINGS

THE LOW PRICES WILL SCORE YOU CANDY & SNACKS THIS HALLOWEEN AT HMART.

OCT. 27TH - 29TH, 2017 AT HMART BURLINGTON STORE

- SHIRAKI Japanese Style Sarukoya Udon Noodles \$3.99 2.75 lb.
- CJ HACCHANDOLE Hot Pepper Paste \$12.99 60 g/oz.
- CJ DASIDA CJ 쇠고기(다시) \$9.99 2.7 lb.
- MARUOME Miso Tofu Sauce \$25 1.5 lb.
- CJ Cooked White Rice \$9.99 7.4oz. x 12ea./box.
- HARMA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9.99 1.76 lb.
- HOUSE Vermont Curry \$25 1.7oz.
- DWUKU Korean Pancake \$3.99 All varieties 1.1 lb.
- HANDREUM Citron Tea with Honey \$5.99 2.2 lb.
- DAMTUH Korean Traditional Tea \$10.99 2000/pkg.
- KTOWN Melon/Sesame & Coconut \$0.99 5.0oz.
- NAMYANG Yogurt \$1.99 15oz. x 20ea./pkg.
- Open Bottom Slipper \$2.79 5.5oz.
- Coffee Printed/Lovely Mat \$3.99 37" x 58oz.
- Multi Heat Mat \$4.99 40" x 60oz.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items (except special order credit cards) are available at the H 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전국 7곳 '영화·드라마 농촌촬영지' 여행코스 선정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대한민국 방방곡곡 영화·드라마 농촌촬영지 여행코스' 7선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달 선정된 여행코스는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된 농촌 촬영지다.

강원도 횡성은 힐링·문화 테마, 충남 당진은 교육·음식, 전북 남원은 역사·체험, 전남 영암은 교육, 경북 김천은 전통, 경남 함양은 힐링·음식 등 총 7개의 테마코스로 구성됐다.

강원도 횡성은 드라마 '패션70s', '상두야 학교가자', '러브레터' 등의 촬영지 풍수원 성당과 예술을 놀이와 접목해 친근감 있게 풀어낸 영화 테마전시장인 오마이갤러리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충청남도 당진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촬영지인 삼교호 함상공원, 막걸리 빚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신평양조장 등 5곳의 명소가 한 코스이다.

전라북도 남원은 '도리화가', '광해', '상의원' 등 수많은 사극의 촬영지이자 우리나라 4대 누각의 하나인 광한루원, 영화 '춘향전' 세트장과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자리한 춘향테마파크, 미꾸라지 잡기와 고구마 캐기 등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추어마을 등 3곳이 이달의 코스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함양의 경우 영화 '곡성'의 촬영지인 도천마을, 전통주를 직접 빚고 시음할 수 있는 박흥선 식품명인의 양조장 명가원, 깊은 골짜기에 계곡이 위치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용추자연휴양림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news1.kr



조윤선 측, 국감 당일 선서하지 않았다...위증은 무죄

(서울=뉴스1) 문창석, 김일창, 윤수희 기자 =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선서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선 1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도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라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답변 취지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없다고 답변한

게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한 채 보고받아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기에 인식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보고받은 것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의원들의 질문 취지는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 배제가 과연 존재하느냐'였다"며 "당시 문체부 직원들의 반응과 인식도 9000명이 넘는 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많은 숫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9473명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리스트도 아니고 숫자도 많아서 실무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보도 당일 문체부가 바로 확인해보니 이 중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하는 종합국감에서 (첫 국감에서 한 최초의) 증언선서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처음 출석했기에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짧은 부임기간으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위증은 부임 한 달 만에 이뤄진 국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은 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어야 했다"며 "당시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은 허위가 없는 진실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블랙리스트라는 문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과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에 자행된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며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원 배제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초점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결은 추가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또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새로 선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고지받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종합국감에서 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한 증언선서의 효력이 유지돼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며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의혹 사과 재발방지 약속

보건복지부 징계와 관련,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수련환경개선을 담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26일 사과문을 발표, "이번 정형외과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원장은 "병원 자체 조사결과 수련현장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이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폭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 대해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고충상담센터 확대운영 △수련의 폭력에 방 및 인성 교육 강화 △전공의의 날 제정 △설문조사 확대를 통한 문제점 조기 인식 △전문상담사 및 책임지도 교수제 실시 등이다. 강 병원장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1년차 전공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19년까지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이라는 중

징계를 내렸다.

또 현재 44명인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을 5%(2명) 감원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정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길 의사가 있으면 병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에는 기관경고와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간 수련규칙을 잘 지키는지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강명재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징계조치와 관련 "이번 징계 내용은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수련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강명재 전북대학교 병원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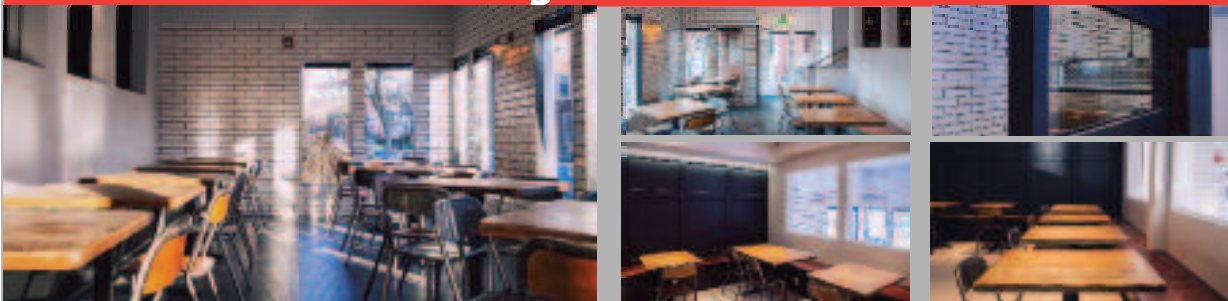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 | | | | |
|---|---|--|--|--|
|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
|---|---|--|--|--|

Featured Business Listing



식당 매매

보스톤 남부에 위치한 성업중인 손님 확보된 식당매매
 년 매출 \$2,000,000, 최상의 위치, Turn Key Operation
 Owner Financing 가능

Asking **\$715,000**

NEW LISTINGS

LISTINGS

| | | | | | |
|---|--|---|---|---|---|
|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폴플랜트 매매 년 매출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년 매출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230,000 |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 세탁소 보스톤 공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 연매상 \$150,000 + Wholesale 좋은동네 무경쟁 안정적인 수입 오너 파이낸싱 가능 Asking \$195,000 | 1.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2.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NEW Full Plant 세탁소 보스톤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
|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Price Reduced |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Price Reduced |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29 George Rd. Unit 29,
Winchester, MA
Asking Price: \$1,950/mo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905C Mas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2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세탁소
큰 volume 찾으시는분
연락바랍니다.
김남준 부동산
617.615.7596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230 High Street Acton, MA 01720
Asking price: \$549,0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4,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6,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01752
Asking price: \$284,90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90 Old Stow Road, Concord,
MA 01742
Asking price: \$569,000.00
Listing Agent: Carol Lenox



UNDER AGREEMENT: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Listing Agent: Maria Koral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간암 원인의 80% 이상 B형 · C형간염 바이러스 지방간의 주요 원인 비(非)알콜성 지방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지난 주에 알아본 간질환 중 만성간염에 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간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간암의 원인인 B형·C형간염 바이러스와 중년 이후 초음파 검사시 나타나는 지방간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B형 · C형간염 바이러스

국내 만성간염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만성 B형간염이다. 말기 간질환인 간경화나 간암의 75%의 원인이 만성 B형간염으로 통상적으로 만성 B형간염은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이어지게 되며, 간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간경변증 없이 만성간염이나 더 나아가서는 비활동성 간염 보유자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간세포의 간암 억제 유전자를 방해하여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반드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혈청 간암 표지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B형간염은 백신 접종이 제일 중요하며, 이미 활동성 간염 단계로 접어든 사람은 간질환 전문가의 진료 후,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C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 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질환이다. (한국

에서는 지난 2015년 다나의원 등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발병사태로 유명해졌다.) 간암 환자의 약 10~15%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전 국민의 약 1%가 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추정되고 있다.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특히, 자신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C형간염은 질환 특성상 급성으로 앓고 난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30~4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만성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경변증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 C형간염 항체가 양성이면 혈청에서 C형간염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 여부를 시행해야 하며, 진단을 받으면 표준 치료 지침에 맞춰 하루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2~3년 사이 90% 이상의 완치를 획득할 수 있는 C형간염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3개월 간 경구용 약제로 별다른 부작용 없이 완쾌될 수 있다.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B형간염은 전파될 위험이 거의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같이 먹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성생활에 의해 상대방에게 전염시킬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간염 예방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 상태라면 무방하다.

C형간염의 경우 환자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생활기구(면도칼, 손톱깎이 등

들의 공동사용을 피해야 한다. 한편, B형간염과 C형간염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기 검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간

지방간은 지방세포가 간 전체 무게의 5%를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뉜다. 보통 술을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방간의 80%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긴 '비알콜성 지방간'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1년 4만 3,734명에서 2015년 3만 3,903명으로 약 22% 감소한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1년 1만 3,429명에서 2015년 2만 8,865명으로 약 115% 증가했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병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방간인 경우가 많으며, 복부지방(내장지방)이 지방간의 더 큰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현재 지방간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생활습관의 변화, 체중감량, 고지혈증 치료, 적정 혈당 조절 등이 병행되어야만 지방간 치료가 가능하다.

체중감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금식 등을 통한 급격한 체중감소는 내장지방에서 간으로의 지방산

이동을 초래해 오히려 급성 지방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간 부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담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체중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0.5~1kg 정도가 적당하며,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에서 500~1,000kcal 적은 식이요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식이요법은 총열량을 제한하고 지방질의 섭취를 전체 열량의 30% 이내로 하며, 고기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쌀밥, 떡, 빵 등)은 체내에서 쉽게 지방으로 바뀌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

고, 고등어, 삼치 등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 혈당저하, 간수치 호전 등 지방 침착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한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을 통하여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운동은 매일 30분 정도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최소 자기체중의 5%를 감량하면 간수치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약 10%를 줄이면 지방간을 개선시킨다. 정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의 실천은 최소 3개월 지속해야 효과가 있으며, 습관이 되어서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전지역 무료 배송

명품안마의자 · 건강기기 종합전시장

INADA Panasonic POSITIVE POSTURE FUJIIRYŌKI



INADA DREAMWAVE
\$265 /월
36개월 무이자



INADA NEST
\$7,900
\$6,000
24개월 무이자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PANASONIC EP 30007
\$3,500



PANASONIC EP MA73
\$223 /월
36개월 무이자

가능이 한단계 UPGRADE된
2017년 파나소닉 MA 73



POSITIVE POSTURE BRIO
\$6,900
\$4,999
24개월 무이자



FUJI FJ5000
\$100 /월
60개월 무이자

김치냉장고 초대박 세일

★★★ 가을맞이 스페셜 이벤트 ★★★
스탠드 김치냉장고 구입시 냉동고 무료증정

김치냉장고 전문 수리기술자 상주
NY, NJ, PA 무료 딜리버리

Samsung zipel

330L 스탠드 \$2,899 + 냉동고 무료증정

220L 구입시 \$1,350 + 무선마루 청소기

126L 구입시 \$750

330L 220L 126L

뎀채° DAEWOO Klasse

418L 스탠드 \$2,999 + 공기청정기

330L 스탠드 구입시 소형냉동고 무료증정

180L 구입시 \$1,150

418L 180L 330L

전자파없는 온수매트
건강한 따뜻함을 만나세요~

내·일·을·브·다
novita
노비타 온수매트

SteamBoy 스팀보이
스팀보이 온수매트

LG styler Steam Clothing Care



걸어만 봐도 새 옷처럼~
집에서도 스타일 클리닝

\$1,900
\$1,499

HiTRONS 보스톤 781-862-6867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을 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크리아 빌리지 1층)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롯데 플라자 마켓 - 엘러콧시티)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공내)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연천도넛 파상열)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 | 617-338-2352 |
| 건인 | 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제청 | 800-829-1040 |
| 날씨문의 | 617-976-6200 |
| 로간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아찾기 | 888-477-6721 |
| 백베지역 | 617-635-9000 |
| 보스톤공립학교 | 617-989-7000 |
| 보스톤수도 | 617-635-4500 |
| 보스톤시청 | 617-641-2830 |
| 보스톤총영사관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아동보호 | 617-748-2000 |
| 아동학대 | 800-792-5200 |
| 알코올/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온전연허 | 617-351-4500 |
| 웹페이지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십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교장선교 (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 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주요 단체

| | |
|----------------|--------------|
| 국제연합기장선교연합회 | 978-407-7554 |
| 국제연합기장선교연합회(네) | 603-889-8201 |
|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 978-902-8305 |
| NE교육지원위원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문인협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산악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시민협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대사주세태대권도협회 | 603-894-5425 |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톤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톤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미노인회 | 978-569-4900 |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 857-998-7043 |
| 재향군인회 | 781-854-8880 |
| 세력인협회 | 508-826-5270 |
| 이북5도도민연합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연합회 | 781-424-5269 |
| R한인경제인협회 | 401-481-4900 |
| 한국인양자(동화)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복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80-2999 |
| 뉴잉글랜드산악회 | 774-270-1948 |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톤 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랑 | 774-270-1948 |
| 서강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79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 |
| 성공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대민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781-717-8800 |
| 한양대동문회 | 781-548-9052 |

언론

| | |
|-----------------|--------------|
| 보스톤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일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몰든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낮아짐교회 | 781-832-2014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턴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 |
|-------------|--------------|
| 구세군몰든교회 | 617-792-8780 |
| 그레이크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한인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내수아한마음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턴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장로교회 | 603-437-5134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264-6799 |
| 라이코스교회 | 978-387-1115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508-926-8236 |
|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 401-353-0983 |
|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 401-944-0520 |
| 대생명의길장로교회 | 401-821-2311 |
| 메리맥 교회 | 978-806-1363 |
| 목양교회 | 617-223-1690 |
| 무지개교회 | 207-774-1617 |
| 밀알한인교회 | 978-244-0691 |
| 렉싱턴 풍성교회 | 617-953-0856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864-5948 |
| 보스톤 국제교회 | 617-459-6479 |
| 보스톤 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사랑의교회 | 617-285-8070 |
|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 978-844-2404 |
|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 781-715-0571 |
| 보스톤 세로남교회 | 617-947-6765 |
| 보스톤 새생명교회 | 978-777-1800 |
| 보스톤 생명의 교회 | 978-578-6987 |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781-894-3958 |
| 보스톤 성결교회 | 781-275-8233 |
| 보스톤 한울교회 | 781-396-1004 |
| 보스톤 소망교회 | 781-686-5526 |
| 보스톤시온성교회 | 781-275-1763 |
| 보스톤안식일교회 | 781-279-3270 |
| 보스톤 온누리교회 | 781-933-7044 |
|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장로교회 | 508-435-4579 |
| 보스톤 제일교회 | 617-458-2733 |
| 보스톤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톤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톤필그림교회 | 857-636-9985 |
| 보스톤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톤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톤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예루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톤교회 | 617-4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시온감리교회 | 4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978-534-3394 |
| 열방교회 | 617-620-3352 |
| 에이더 벨렘교회 | 978-274-2369 |
|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 413-549-6495 |
| 엘리스티 시온교회 | 413-549-9200 |
| 올스톤한인교회 | 617-642-7403 |
| 우스터 교회 | 508-799-4488 |
| 우스터장로교회 | 781-354-1843 |
| 위십프린티어 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978-394-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땅교회 | 978-930-6613 |
| 지구촌방주교회 | 617-838-6434 |
| 캠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캠브리지연합장로교회 | 781-861-3877 |
| 퀸시영생장로교회 | 617-770-2755 |
| 하버드 한인교회 | 617-441-5211 |

| | |
|-----------|--------------|
| 불교 | |
| 문수사 | 781-224-0670 |
| 서운사 | 508-755-0212 |
| 심광사 | 617-787-1506 |
| 보스톤 정토 법회 | 617-977-4227 |

원불교

| | |
|----------|--------------|
| 원불교보스톤성당 | 617-666-1121 |
|----------|--------------|

천주교

| | |
|-------------|--------------|
|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 617-558-2711 |
|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 401-499-8258 |

간판

| | |
|-------|--------------|
| 초이스간판 | 617-470-1083 |
|-------|--------------|

건강식품

| | |
|---------------|--------------|
|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 781-238-0303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태 건축사 | 617-620-8242 |
| 미남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류평사이딩 청문 | 617-999-9616 |
| 아들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항건축 | 617-688-6833 |
| 한샘(주)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골프 개인

| | |
|-----------|--------------|
| 골프 개인 PGA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ABC골프 | 603-401-7990 |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회계사

| | |
|-------------------|--------------|
| 김양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주 회계사 | 781-944-2442 |
| Hana Rehab Clinic | 617-455-8073 |
| 정진수회계사 | 508-584-5860 |
| 한미회계사 | 617-792-2355 |
| 한성애회계사 | 617-283-7151 |

꽃

| | |
|-------|--------------|
| 미스틱화원 | 617-666-3116 |
| 데코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금융/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류영욱) | 617-777-2929 |
| 에이저리 | 781-591-2722 |
| 이중수파이낸스 |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노래방

| | |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톤공립도서관 | 617-539-5400 |

당구장

| | |
|--------|--------------|
| 올스톤당구장 | 617-782-0969 |
|--------|--------------|

동물병원

| | |
|-----------|--------------|
| 김문소 동물병원 | 978-649-6513 |
| 윤상래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킴 동물병원 | 978-658-5282 |

떡/진차/반찬(주문)

| | |
|-------|--------------|
| 형제떡집 | 978-343-6080 |
| 장음식주문 | 781-648-0584 |
| 한아름 | 617-547-8723 |

미용실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크스킨케어 | 978-468-0039 |
| 그레이크스킨케어 | 617-331-1011 |
| 뷰티룸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압구정동열골방 | 617-437-0378 |
| 웨스트메인헤어 | 508-734-0446 |
| 티케이헤어디자인 | 508-768-7675 |
|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 978-772-7886 |
| 헤어 스텝 | 617-787-1735 |
| 헤어 크렌 | 617-773-1220 |
| 헤어 Collage | 617-354-4660 |
| 미용실 코리아LEE | 617-913-3559 |
| AYER BEAUTY SALON | 978-772-6555 |
| 최희의 헤어(Bloss Image) | 617-818-5596 |
| 헤어앤드 그레이크스실롱 | 808-879-7722 |
| MIN-AH MAKEUP | 508-617-7177 |
| Scotty's of Lexington | 718-861-1277 |

돌상 대여/폐백

| | |
|------|--------------|
| 해피돌상 | 617-249-3131 |
| 폐백 | 978-688-0929 |

방송국

| | |
|-----------|--------------|
| 엔티비보스톤사업국 | 617-955-9112 |
|-----------|--------------|

변호사

| | |
|-------------------|--------------|
|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국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국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종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 203-852-9800 |
| 워드랜드/백커먼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전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병원

| | |
|-------------|--------------|
| 가정의 | |
| 그레이크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내과

| | |
|------------|--------------|
| 송민근 | 617-696-7600 |
| 하버드뱅크(이차용) | 617-421-2282 |
| 한서동내과 | 401-722-0305 |
| 한성식내과 | 978-854-6376 |

산부인과

| | |
|---------|--------------|
| 최의웅산부인과 | 401-726-0600 |
| 이윤노산부인과 | 508-427-3000 |

소아과

| | |
|---------|--------------|
|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심리상담

| | |
|----------|--------------|
| 배주은심리상담사 | 617-566-1055 |
|----------|--------------|

심리상담

| | |
|----------|--------------------|
| 김자향심리치료사 | 781-789-8670 x6080 |
|----------|--------------------|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 508-728-0832 |
| 인나경심리상담소 | 617-738-9622 |

재활의학

| | |
|-------------------|--------------|
| 가족물리치료병원 | 781-365-1876 |
| 닥터스통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추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Hana Rehab Clinic | 617- |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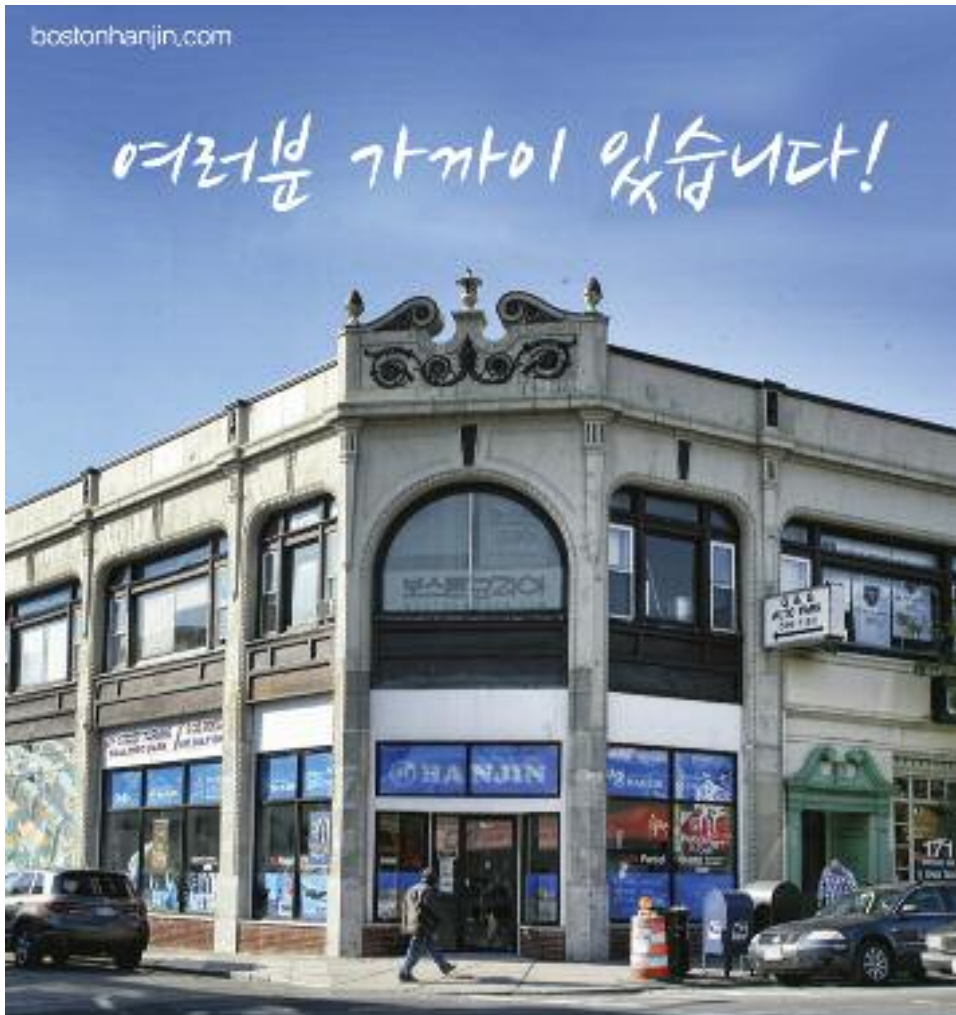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buluy Parish of Essex Christ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간)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2,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여와 권리와 기쁨의 배너라 (딤후 3:15)
담당 목사 / 우시환

| | |
|-------------------------------|-------------------|
| 주일예배 / 오후 9: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
| 유치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 |
| Grace Bible Study / 수 7:30 | LIFE 모험 / 주일 4:00 |

335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 교회 예배 안내 | |
|----------|-------|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 주일 학교 | 오후 2시 |
| 전도인 공부 | 오후 4시 |
| 화요 공부 | 오후 7시 |
| 수요 예배 | 오후 7시 |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 | |
|--------------|----------------|
|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
|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를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求 (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求)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 요한복음 14:14.

11월 7, 8일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左派) 진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반대집회”를 공언하고 나섰다.

일부 좌파단체들이 벌인 반미(反美)집회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현지에도 알려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민주노총과 반미(反美)단체들로 이뤄진 ‘노(No)트럼프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나라 땅에서의 전쟁을 운운하는 외국수반을 이 땅 어느 국민이 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는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을 다질 기회를 삼기 위해 대북 압박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대북 압박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행동에는 민주총괄기투쟁본부와 반전평화국민행동, FTA대응대위 소속을 비롯해 220개단체가 참가한다.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회진보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30일부터 광화문 광장과 온라인에서 시국선언 등 항의행동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11월 4일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을 행진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집회를 열고, 8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저지 집회를 열겠다는 것.

앞서 지난 14일 국내 반미(反美)단체는 주한 미국 해군사령부 주최 파티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여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부산민중연대 회원 70여명은 이날 미 해군(海軍) 창설 242주년(10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찾아가 오후 4시부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썼던 ‘Dotard(노망난 늙은이)’라는 문구

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미치광이 트럼프의 존재가 남의 땅에서 전쟁을 벌여 놓고 너희는 술판을 벌이느냐”며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미군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Dotard’라는 표현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달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국말로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표현해 온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것.

求구: 이 求자는 “물(水:수)을 통한 십자가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통한 ‘하느님 사랑(愛)과 이웃 사랑(愛)= 사랑을 성령님(聖靈)을 통하여 성취하는 상황을 그린 글자. (지난 번 Column: 28을 참조)

“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求하겠으니 그(아버지 하나님)가 또 다른 보혜사(保惠師)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요한복음 14:16. 따라서 求한다는 뜻이 “물(水)과 + (십자가 사랑)더하기 성령(聖靈)님으로 합성돼 있는 글자이지만”

이세상과 영원한 하늘나라와의 연결로 영생(永生)에 참여할 수 있는 열쇠의 글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 求를 사이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구체화한 말씀이 “내가 주는 물(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永生)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14:14.

求자의 “물(水)이 영생(Eternal Life)을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恩惠)를 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세상은 훨씬 평화롭고 안녕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인생(人生)에는 골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永生)에는 제외되어 있으니...

예수께서 다시 부탁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 요한복음 14:14.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가는 까닭-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투깝스' 형사 조정석x기자 헤리, 첫 만남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조정석과 헤리가 강렬한 첫 만남을 예고했다.

MBC 새 월화드라마 '투깝스' (극본 변상순/연출 오현종) 측은 23일 강력계 형사 차동탁과 천상 사기꾼 공수창으로 1인 2역을 맡은 조정석과 사회부 기자 송지안으로 변신한 헤리의 첫 만남을 공개했다.

극 중 차동탁은 훈훈한 비주얼의 소유자이자 정의감 빼면 시체인 열혈 형사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저승사자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캐릭터이지만, 차동탁의 몸에 빙의될 공수창은 돈은 물론 사람의 마음까지 훑치는 마성의 사기꾼이다.

이렇듯 180도 다른 두 남자와 얽히고설켜 인연을 맺을 사회부 기자 송지안은 불철주야 취재만을 위해 뛰는 악바리 근성의 사회부 기자로, 경찰서를 내 집같이 드나들며 하이어나처럼 특종을 찾아 해매는 인물이기도 하다.

공개된 사진 속 까칠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차동탁(조정석 분)과 송지안(헤리 분)의 사이에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목소리를 통해 서로를 향한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동탁과 지안에게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피어오르게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형사와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마주쳐야 할 일이 잦은 만큼 부딪쳐야 하는 사건도 많다. 이에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빚어낼 케미스트리에도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투깝스'의 제작진은 "이날 촬영에 앞서 조정석과 헤리는 꼼꼼하게 대본과 동선을 맞춰보며 극 중 차동탁과 송지안의 첫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성이 시청자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으

로 보인다. '투깝스'를 향한 두 배우의 열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2017년 가장 신선한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석과 헤리가 보여줄 연기 호흡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드라마 '투깝스'를 더욱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한편 백질이 사기꾼 영혼이 빙의된 강력계 형사와 뺑속까지 까칠한 사회부 기자가 펼치는 판타지 수사 드라마 '투깝스'는 오는 11월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aluemchang@news1.kr

'신서유기' 외전, '꽃청춘' 워너편 11월 7일 첫방송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신서유기4'에서 보여준 송민호의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에 힘입어 성사된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워너'는 오는 11월 7일 밤 10시 50분 처음 방송한다.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워너'는 지난 8월 종영한 '신서유기4'에서 그룹 워너의 멤버 송민호의 소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당시 제작진이 준비한 쉽지 않은 게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일명 '송가락'으로 등극한 송민호는 제작진에게 그룹 워너의 '꽃청춘'을 소원으로 제안, 이를 제작진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강승윤, 이승훈, 송민호, 김진우 네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워너는 이번 '꽃청춘' 시리즈 출연으로 그동안 무대 위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열혈 청년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출연진들조차 언제, 어디로 출발할지 모르게 떠나는 것이 컨셉이었던 '꽃청춘' 시리즈의 특성상 이번 '꽃보다 청춘 워너' 또한 출발을 가늠할 수 없었던 상황. 이후 '꽃청춘 워너'가 방송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워너와 그런 워너를 속이기 위한 제작진의 치밀한 계획이 재미를 줄 전망이다.

한편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워너'의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제작진



이 호주에 도착한 워너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호주를 배경으로 한 가수 워너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빠빠용 복장으로 사진을 찍은 멤버들의 모습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또한 한층 들떠 있는 워너 멤버들의 모습을 통해 '꽃청춘 워너'를 손꼽아 기다려온 시청자들에게 기다림을 채울 만큼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청춘 워너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워너'는 오는 11월 7일 밤 10시 50분 tvN에서 처음 방송된다.

ichi@news1.kr

10월 29일 - 11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 | |
|--|--|---|
| <p>쥐띠 최선을 다해</p> <p>● 운수: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 금전: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9, 1일 길일, 31, 3일 주의.</p> | <p>소띠 열과 성을 다하도록</p> <p>● 운수: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처리를 하세요. ● 애정: 아무 것도 아닌 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p> | <p>범띠 눈앞에 흘린 볼이</p> <p>● 운수: 눈앞에 흘린 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자급사정에 나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승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 애정: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1, 3일 길일, 2, 4일 주의.</p> |
| <p>토끼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p> <p>● 운수: 소신껏 뜻을 펼치게 되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 금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봐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p> | <p>용띠 심사숙고해서</p> <p>● 운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1일 길일, 29, 4일 주의.</p> | <p>뱀띠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p> <p>● 운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로 인한 소화기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자신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3일 길일, 30, 4일 주의.</p> |
| <p>말띠 좋은 인연을 얻는</p> <p>● 운수: 꿈꿨던 열었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온기가 돌고 따뜻해집니다. 주위사람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매력을 느끼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급진전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2일 길일, 29, 31일 주의.</p> | <p>양띠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p> <p>● 운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지지 마세요.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금전: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 애정: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3일 길일, 29, 4일 주의.</p> | <p>원숭이띠 크고 넓게 생각해야</p> <p>● 운수: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가까운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면서 활동범위를 넓혀보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큰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1일 길일, 30, 2일 주의.</p> |
| <p>닭띠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p> <p>● 운수: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2일 길일, 30, 31일 주의.</p> | <p>개띠 서서히 진행해야</p> <p>● 운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무리하지 마세요. 금전유통이 되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나 망설이고 있다면 적당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p> | <p>돼지띠 귀담아 들어주어야</p> <p>● 운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 금전: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1/10
렉싱턴 지역 한국식당에서 주방헬퍼 구합니다.
T. 781-863-2800

11/17
통역 하실 분 (파트타임) 구함.
T. 617-388-7276 T. 917-340-059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세탁소 판매

드라이클리닝 풀 플랜트 + 셔츠유닛

프라이م 로케이션 (Cambridge)
안정적인 비즈니스 45년 운영
(Well established business, 45years)
소유주 은퇴
근무자 : Owner + 3 Part times
매매가격 : \$160,000

T. 617-549-59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오혁 · 아이유 · 악뮤 수현 등, 에픽하이 새 앨범 피처링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에픽하이가 새 앨범 피처링 라인업을 공개했다.

에픽하이는 17일 오후 공식 SNS에 정규 9집 'WE'VE DONE SOMETHING WONDERFUL'의 2차 피처링 라인업 포스터를 게재했다. 아이유에 이어 오혁, 크러쉬, 악동뮤지션 수현, 넬 김종완 등이 포함됐다.

에픽하이는 뛰어난 프로듀싱 역량을 비롯해 뚜렷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적극 참여로 '웰메이드' 앨범을 만드는데 힘을 실었다.

타이틀곡 제목 '빈차' 까지 공개돼 팬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등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에픽하이 멤버들은 "오혁은 '빈차' 데모를 듣자마자 '제가 부를게요!' 라며 달려와서 바로 녹음해줬다. '작업' 을 한다는 생각보단 영감 그 자체를 행하는 경험이었다" 라며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전했다.

에픽하이와 오혁은 지난 2015년, Mnet '소미더머니 시즌4' 당시 프로듀서 특별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음악적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신곡 '빈차' 를 통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춘 이들은 보다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피처링 라인업이 막강한 조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에픽하이는 23일 오후 6시 새 앨범 'WE'VE DONE

EPIK HIGH 9 10月 23日 6PM



SOMETHING WONDERFUL'을 공개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1시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24일부터 YG이

삼을 비롯해 전국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hmh1@news1.kr

'알바트로스' 유병재, 박주민 의원에 호칭정리 "형이라고 부를게요"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알바트로스'의 알바청춘에 도전했다.

25일 tvN '알바트로스' 에션 박주민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 알바청춘 대신에 알바에 나서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날 국회의원 게스트의 등장엔 유병재와 안정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차안에는 대면한 세 남자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이어 유병재는 호칭정리에 나섰다. 유병재는 "국회의원이시지만 형이라

고 부를게요"라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게 맞는 거죠?"라고 개그를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안정환은 호칭에 대해 묻는 박주민 의원에게 편하게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병재는 "저희도 급하면 박형이라고 부를게요" 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샌드위치 알바에 도전하며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galaxy98@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LIS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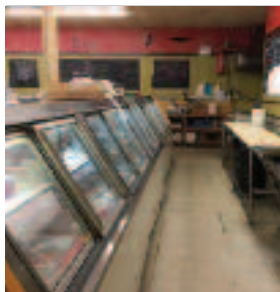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98,000



Sign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160,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70,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렌트 세탁소
ASKING \$160,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Boston동북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이태리 커피 및 샌드위치 Cafe & Bakery Owner 이주, 좋은 가격
ASKING \$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God's Calling For This Generation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에베소서

에베소서 4:1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017.11.23 (Thur)-11.25 (Sat)

Thanksgiving Holidays 2박3일

Sheraton Hotel at Framingham, MA

- +이만열 교수 (숙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 +하근수 목사 (동탄시온교회)
- +박반석 목사 (그레이스 커뮤니티 채플)
- +노승환 목사 (토론토 밀알교회)
- +전경호 목사 (기독교 청년 대안 공동체 아들람)
- +이태후 목사 (필라델피아 빈민사역)

- +이윤아 교수 (뉴욕 시티 오페라 주역 가수/ 아리조나 대학 부교수)
- +김천식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 +김희선 교수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기독교상담)
- +이의현 대표 (교육 소셜벤처 JUMP 대표)
- +홍종희 권사 (Ashland Family Dental)
- +Michelle Park 대표 (전 노스이스턴대 강사)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집회기간 중 0-2세 영아와 어머니를 위한 Nursery Room 이 마련되며,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Kids ReNEW 와 Youth ReNEW 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비

성인 1차등록(-10/23) \$199, 2차등록(-11/6) \$249, 3차등록(-현장등록) \$339 <4인1실 기준, 호텔이용 및 식사비 포함>
0-4세 무료, 5-10세 \$89, 11세 이상은 성인등록과 동일합니다.

등록문의: register@renewusa.org 일반문의: admin@renewusa.org
ReNEW 2017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ReNEW 2017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renewusa.org)

신영의 **세상 스케치**

61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우리 집 세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 가득...

우리 집 딸아이가 요즘 신바람이 났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동생과 룸메이트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세 아이가 모두 연년생이니 누나라는 느낌이나 남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늘 친구 같은 아이들이다. 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있었지만, 대학원을 다닐 때는 딸아이가 큰 녀석이 모두 보스톤에 있어서 함께 아파트를 얻어주어 룸메이트를 했었다. 그리고 큰 녀석이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동안 딸아이는 다른 룸메이트 친구와 함께 지냈었다. 그리고 남동생이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다시 보스톤에 와 있어 그 누구보다 누나가 신바람이 난 것이다.

9월 초에 보스톤 시내에 아파트를 얻어 들어서 이사를 한단다. 엄마가 뭘 도와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한다. 나는 여느 엄마들처럼 쫓아다니며 자상하게 챙겨주는 편은 못 되니 그냥 알았다고 답을 해주었다. 딸아이는 먼저 룸메이트와 계약이 끝났는지 일주일 정도 집에 와서 지내며 직장에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30분 정도를 운전으로 오가니 딸아이는 불편할지 모르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

주니 엄마는 요즘 내심 기분이 좋다. 아이들 셋이 대학을 입학하며 내리 3년을 하나씩 대학 기숙사로 떠나 시원섭섭했던 기억이 몽실거린다.

딸아이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9학년을 맡아 가르치다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만두었다. 그때 엄마의 속상한 마음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 어렵게 얻은 자리를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온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화가 나는 것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다. 그렇지만, 딸아이에겐 이 한마디 얘기는 해주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장을 마련해둔 후에 그만둬도 늦지 않는다고 말이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른 직장을 찾느라 6개월을 고생하고 이 학교 저 학교 임시 선생 자리를 찾아다니며 깨달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 인생의 뒤편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6개월을 고생하더니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것도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일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요즘은 남동생도 보스톤

으로 와서 든든해서 좋고 생활비도 절약되어 기분 좋으니 신바람이 났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익스텐션 스쿨'은 직장인들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 많이 듣는 강의이며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버드 대학교 직원들에게는 학비가 많이 지원되어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남편보다도 더 어렵고 오빠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 집 큰 녀석은 책임감이 강하니 엄마에게뿐만이 아닌, 누나와 동생에게도 늘 의논의 상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변호사 직업이 천직이라 여겨진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고 근검절약에는 우리 집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때로는 돈을 너무 아껴서 걱정인 아이이다. 그렇지만, 돈을 절약했다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제대로 한 번씩 하는 녀석이다. 막내 녀석도 한 살 터울밖에 아닌 형을 때로는 어려워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동생을 말없이 잘 챙겨 주기에 형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커서일 게다.

우리 집 막내는 막내라서인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인지 경제적인 관념이 좀 약하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누나도 아직 특별한

남자 친구가 없고 형도 아직 여자 친구가 없는데 막내 녀석은 조용하고 근검절약형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이다. 엄마로서는 최고의 며느릿감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던가. 나는 그렇게 절약하며 살지 못했는데 아들 녀석까지 엄마를 닮았으니 은근히 걱정되었던 녀석이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썸머 캠프에서 일하며 만난 미국 여자아이다. 벌써 7년 정도를 사귀고 있으니 그 아이의 성품을 이제 많이 알고 있다.

막내 녀석과 여자 친구는 7년이 다 되도록 서로 변함없이 좋아하고 챙겨주며 귀한 친구로 있어 감사하다. 이렇듯 우리 집 세 아이와 막내 녀석의 여자 친구는 가족처럼 자주 만나는 편이다. 서로 의논거리가 있으면 넷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며 의논도 하니 참 보기 좋다. 서로 좋은 일의 축하와 어려운 일의 격려로 친구처럼 지내는 세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나는 어려서 언니들과 나이 차이가 있어서 싸우며 자라질 못했다. 막내 언니와도 5살 차이가 나니 어려서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 혼자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집 세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 가득하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박카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누가 떨어뜨렸는지
빈 박카스 병 하나 연신 버스 바닥을
굴러다닌다
왼쪽으로 커브를 틀면
도르르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면
도르르르 왼쪽으로,
...
좌석 없는 유일한 승객처럼
손잡이를 놓친 승객처럼
...
도르르르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고영민, 빈 박카스 병에 대한 명상)

요사이 한국에선 안보 피로감이라 하던가. 안보 불감증이라 하던가. 머리위에 핵폭탄을 지고 이고 사는 판이다. 그런데, 여전히 큰 동요는 없는듯 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박카스 다른 선전문구가 떠올랐다. 풀려라 오천만. 풀려라 피로. 박카스 한병에 모든 한국인들 안보 피로감이 풀릴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강대국사이에서 혹시 빈 박카스 병되어 어리저리 구르는건 아닌가. 젊음. 지킬것은 지키다. 절창이다. 제발 이북에서도 지킬것은 지키기를 빈다.

내 언약을 지키고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9)

중학교 적이다. 3학년이 진급했다. 일반사회 과목 첫시간이었다. 담당선생님이 교단에 섰다. 첫 말씀이다. '수업이 시작되기전 주변은 박카스를 준비해라.' 특명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엄명이었다. 다음 학과시간이었다. 선생은 교단에 섰고, 준비된 박카스를 발견했다. 흡족한 표정이 역력했고, 병을 따서 원샷으로 마셨다. 심하게 요동치는 선생 목젢에 아이들 눈동자가 몰렸다. 선생은 교실 뒷편 휴지통으로 몸을 움직였다. 빈 박카스병을 버리기 위해서였다. 슬퍼피 끄는 소리에 맞춰, 박카스 냄새가 봄 처럼 흩어졌다.

활력活力을 마시자. 박카스 선전문구였다. 박

카스를 마시면 활력이 생겼던 모양이다. 몰려오는 잠을 억제 할 수는 있었을 게다. 버스운전 기사가 마셨고, 일반사회 선생님이 마셨다. 내 어머니도 박카스 박스를 늘 끼고 계셨다. 심심풀이로 마셨으니 말이다. 음료수마냥, 송농마냥 그냥 드셨다. 아, 어머니. 박카스 한병 제대로 사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카스 병 상표에 붙어있는 내용물이다. 카페인, 타우린, 그리고 설탕. 그닥 해로운 건 아니다. 커피와 같다고나 할텐가. 그런데, 박카스 빈병은 리사이클이 되는가. 달리는 버스 바닥에 떨어진 박카스병, 또로록 잘도 구른다.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018 Hyundai Elantra SE</p> <p>Keyless-Start, 18" Alloy Wheels, Power Windows, Remote Keyless Entry w/ Alarm, Steering Wheel Mounted Audio/ Cruise Controls</p> <p>TND, Automatic</p> <p>Stock #H012027</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14,080</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15,00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4,000</td> <td></td> </tr> <tr> <td>• \$1,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1,1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14,080 | 0% APR | • 36-month lease | MSRP.....\$15,0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4,000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100 | | <p>2017 Hyundai Sonata 2.4L</p> <p>Keyless-Start, Bluetooth, Sirius XM, AWD, Automatic</p> <p>Stock #H012412</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15,560</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20,96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3,000</td> <td></td> </tr> <tr> <td>• \$1,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2,0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15,560 | 0% APR | • 36-month lease | MSRP.....\$20,96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000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000 | | <p>2017 Hyundai Elantra Eco</p> <p>Keyless-Start, Heated Front Seat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 Display Audio System w/ 7" Touchscreen & 4 Speakers, 8-Speed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p> <p>TND, Automatic</p> <p>Stock #H011999</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16,890</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21,70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3,400</td> <td></td> </tr> <tr> <td>• \$1,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1,5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16,890 | 0% APR | • 36-month lease | MSRP.....\$21,7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400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500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14,080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15,0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15,560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20,96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16,890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21,7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018 Hyundai Sonata SE</p> <p>Keyless-Start,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ed, 8-Speaker, Rear View Camera, Blind Spot Detection System w/ Rear Cross-Traffic Alert</p> <p>TND, Automatic</p> <p>Stock #H012400</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18,940</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23,14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500 Special Military Rebate</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2,500</td> <td></td> </tr> <tr> <td>• \$4,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1,2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18,940 | 0% APR | • 36-month lease | MSRP.....\$23,1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500 Special Military Rebate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500 | | • \$4,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200 | | <p>2017 Hyundai Tucson SE</p> <p>Keyless-Start, Overhead Storage Bin, Mirror, Search Case, Touchscreen Radio, Rear View Camera</p> <p>AWD, Automatic</p> <p>Stock #H012490</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19,920</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25,07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4,150</td> <td></td> </tr> <tr> <td>• \$2,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1,2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19,920 | 0% APR | • 36-month lease | MSRP.....\$25,07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4,150 | | • \$2,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200 | | <p>2017 Hyundai Tucson Sport</p> <p>Keyless-Start, 17" Alloy Wheels, Chrome Triple Bar Door Bracket, Proximity Key with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LED Light, Blind Spot Detection w/ Rear Cross-Traffic Alert</p> <p>AWD, Automatic</p> <p>Stock #H012005</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21,665</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28,80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3,400</td> <td></td> </tr> <tr> <td>• \$3,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3,6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21,665 | 0% APR | • 36-month lease | MSRP.....\$28,8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400 | | • \$3,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3,600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18,940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23,1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500 Special Military Reb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19,920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25,07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4,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21,665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28,80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3,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3,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017 Hyundai Santa Fe Sport</p> <p>Keyless-Start, Bluetooth,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ed, 8-Speaker, Hands-Free Phone System, Fog Light</p> <p>AWD, Automatic</p> <p>Stock #H012271</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22,540</td> <td>0.9%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30,34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1,000 Special Finance Rebate</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2,500</td> <td></td> </tr> <tr> <td>• \$1,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2,3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22,540 | 0.9% APR | • 36-month lease | MSRP.....\$30,3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1,000 Special Finance Rebate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500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300 | | <p>2017 Hyundai Santa Fe SE</p> <p>Keyless-Start, 2nd Row Seating,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Vehicle Repeat Entry</p> <p>AWD, Automatic</p> <p>Stock #H012172</p> <table border="0">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99/mo.</td> <td>\$27,765</td> <td>0% APR</td> </tr> <tr> <td>• 36-month lease</td> <td>MSRP.....\$38,640</td> <td>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td> </tr> <tr> <td>• 12,000 miles per year</td> <td>Rebate.....\$2,900</td> <td></td> </tr> <tr> <td>• \$2,000 down payment</td> <td>Prime Discount.....\$2,000</td> <td></td> </tr> </table> | Lease | Purchase | Finance | \$99/mo. | \$27,765 | 0% APR | • 36-month lease | MSRP.....\$38,6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900 | | • \$2,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000 | | <p>한국인 딜러</p> <p>Earl Ko <small>고열</small>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p>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22,540 | 0.9%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30,3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1,000 Special Finance Reb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 | Purchase | Fi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mo. | \$27,765 | 0% A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month lease | MSRP.....\$38,640 |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0 miles per year | Rebate.....\$2,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 down payment | Prime Discount.....\$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or 12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7.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10/31/201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필립스 아카데미(Phillips Academy) III-1]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캠퍼스 라이프〉

필립스 앤도버는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아주 큰 사립 보딩 학교에 속하지만, 개별 학생들을 지역적 위치로 분류하여 소규모 그룹(Cluster)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나의 독특한 학생관리 체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식사와 운동 그리고 다양한 교외 활동뿐만 아니라 스터디 그룹까지 형성하여 앤도버 공동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CAMD(Community & Multicultural Development)는 앤도버내의 다문화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써, 앤도버 한인회와 같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모임이 이 프로그램안에 있다. 앤도버의 주말 기간에는 학과수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스포츠 게임을 제외한 많은 시간들을 클럽 활동 및 봉사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자치 신문사 및 잡지로는 The Phillipian, Backtracks, Pot Paurri, The Record 등이 있고, 클럽 활

동으로는 Academic, Arts, Community Service, Economics, Environmental, Health, Language, Multicultural, Music, Politics/Law, Radio, Religious, Sports/Games 등의 다양한 클럽 활동들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음식의 수준은 다른 어떤 보딩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우수하다. 앤도버가 최고의 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학생 자치 활동들이 학생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기획, 진행 되어지고, 학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하나하나의 장점을 학생 스스로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 어드바이저,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반면 학부모가 과목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어드바이저와의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학교 분위기는 자신감이 넘치고 학생들 표정이 밝다는 큰 특징이 있다.

〈영문대학 진학〉

지난 3년동안, 전체 학생의 약 45%가 미국 최고의 대학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평균 SAT점수는(Class of 2017기준): CR-690, Math-710점 이었다. 최근 3년 동안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 된 대학으로는 BC, Harvard, Yale, Upenn, 시카고 대학, 20~29명 Brown, Columbia, Cornell, Georgetown, NYU, Princeton, Stanford, 10~19 Amherst, Carnegie Mellon, Dartmouth, MIT, Northwestern, Rice, Tufts, Washu, Williams 등에서 입학허가 되었다.

앤도버의 칼리지 카운셀러 한명당 관리 학생수는 약 30~50명 이상 이기 때문에 실제로 칼리지 카운셀러만을 의존한 대학 진학의 진행은 약간 박차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카운셀러를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학교가 제시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나 칼리지 카운셀러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능한 빨리 준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한 Naviance를 통해 모든 성적과 추천서 각각 대학에 전달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최종 대학 리스트가 Naviance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만약 12월 1일까지 대학 리스트가 올려져 있지 않다면 앤도버에서 학생들 Naviance ID/password를 차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대학 리스트를 올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칼리지 카운셀러와 대화가 잘 된다면 수동적으로 대학 리스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 및 등록금〉

필립스 앤도버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재정보조의 혜택이 주어지는 학교로서, 지난해 전체 학생중 약 48%가 재정보조 수혜를 받았다. 이 중 13%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평균 보딩학생들 기준 약 \$39,700 정도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기숙학생들의 등록금은 \$53,900(2017~2018기준)이고, Day 학생들은 \$41,900(2017~2018기준)로 매년 일정% 정도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01
화랑세기(花郎世紀), 7세 풍월주(風月主) 설화랑(薛花郎)(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시대는 다시 진평왕의 즉위년인 579년으로 돌아왔다. 커가는 문노의 세력을 염려한 사도 태후와 미실은 화랑의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미실이 우두머리인 원화의 자리에 오르고, 세종을 상신, 문노를 아선, 설원랑과 비보랑을 좌우봉사화랑, 미생을 전방봉사화랑으로 삼았다. 화랑도의 내부 분열과 진지왕 폐위에 반발을 우려하여 문노를 아선으로 삼았다. 물론 설원랑이 풍월주였지만 미실은 이미 그가 모든 면에서 문노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낭도들로 하여금 문노를 선도仙道の 스승으로 섬기라고 명을 내렸다. 비보랑은 이미 문노의 낭도인지라 별도의 명이 필요치 않았으며, 설원랑과 미생 등 운상인과 낭도들에게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비록 전주(왕후와 비슷한 지위)이자 원화인 미실의 명이지만 운상인의 많은 낭도들이 문노를 스승으로 받드는데 주저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인 설원랑이 무릎을 굽히고 문노를 스승으로 섬겼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문노를 신과 같이 섬겼다(원문 이봉문노여신而奉文努如神). 또한 동시에 문노의 낭도들도 설원랑에게 모두 복종하면서 화랑도의 무리는 그 어느때 보다 더 견고히 결속된 조직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에 앞서 문노는 풍월주가 이끄는 화랑도

가 아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로 스스로 국선이 되어 또 한 무리(一門)의 수장이 되었다. 이는 단지 그가 받은 지위에 대한 불만으로만 세워진 낭도들이 아니고, 신기에 닿은 그의 격검술을 배우러 구름처럼 몰려든 초택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진지왕 또한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국선에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문노의 세력은 기세를 드높이고 있었다. 이 무렵 문노의 입지를 빠르게 간파한 미실은 진지왕을 폐위하려는 자신의 '거사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문노의 세력이 더 확대되기 전에 자신이 화랑도를 장악하면서 문노를 아선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풍월주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설원랑을 해임하고 문노를 새로운 풍월주로 세웠다. 이에 처음에 문노는 그 지위를 사양했다. 국선이 결코 풍월주보다 낮은 자리가 아닌데 어찌 스승으로서 아우(설원랑)의 자리를 물려받느냐면서 거절을 하였다. 하지만 직전 풍월주를 역임한 왕자(전군) 신분의 세종이 사다함의 뒤를 이어 위에 올랐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지위와 나이에 구애받지 말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설원은 다만 전주 미실의 뜻과 명에 따라 화랑도의 임무를 수행했음도 재차 상기시켰다. 결국 문노는 미실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차기 풍월주의 지위를 양위 받았다. 이 내용이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미실은 이에 설원랑이 문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문노를 선도仙道の 스승으로 삼는다고 명령을 내리고, 설원랑과 미생 등에게

스승으로 섬기도록 했다. 설원랑의 도徒 중에 불평하는 자가 많았다. 설원이 말하기를 “총주(總主) 215)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 하고 무릎을 굽혀 섬겼다. 이로써 문노의 도徒 또한 설원에게 기꺼이 복종했다. 미실이 기뻐하며 그 위치를 문노에게 물려주도록 했다. 문노가 말하기를 “국선은 풍월주보다 아래가 아니고 또한 그대는 나의 아우인데, 어찌 스승으로 아우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했다. 설원이 말하기를 “국선이 비록 전왕이 설치한 것이지만 풍월정통은 아니다. 또 세종전군이 왕자의 귀함으로 오히려 사다함공의 뒤를 이었으니 하물며 내가 사형(師兄) 216)을 받들어 섬긴 것은 미실의 명이 있었던 까닭인데 지금 미실궁주가 다시 양위를 명하는 까닭에 감히 거역할 수 없다” 했다. 문노는 “궁주가 이미 명령했는데, 신민 또한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이에 문노가 풍월주의 지위를 이었다.]

그리고 8세 풍월주 문노의 취임식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 그 장면을 감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시 신라에서 사용한 '신민'에 대해서 좀더 고찰해 본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으로 오면서 신은 왕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였지만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선임과 후임의 관계에서 까지 넓게 사용되었다. 8세 풍월주 문노전에 보면 세종이 6세 풍월주가 되었을때 문노가 방문하여 인사를 올리는데 세종이 “나는 감히 그대를 신민으로 삼을 수 없소”라고 했다. 여기에서 직제상으로는 세종이 풍월주

로서 위였지만 문노의 나이와 위상, 무엇보다 신기에 이른 그의 검격술과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데 무수한 전공을 세운 그를 감히 신으로 칭할 수 없으니 “나의 형이되어 도와 주시오”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문노가 취임식을 할때 원화 미실과 상신 세종 그리고 전임 풍월주 설원랑에게 무릎걸음으로 나가 칭신하는 장면도 있다. 신민의 개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정확한 시대적인 고찰은 불가능하지만 신의 근원적인 의미는 고찰할 수 있다.

“공에게 봉사하는 이를 신민이라 하고 가에게 봉사하는 이를 복僕이라 한다(仕於公曰臣 仕於家曰僕)” 여기 예운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공은 제후이고 가는 대부를 말한다. 이렇게 봉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용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은 신하로, 복은 노예라는 의미로 그 뜻이 굳어진 것으로 본다. 중요한 점은 신민에 복僕의 뜻과 임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 215) 총주는 미실을 가르킨다.
- 216) 사형은 문노를 가르킨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and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
 present **An Evening with Parker Quartet**
 with Jung-Ja Kim



특별 출연

김정자 피아노

찰스 클레멘츠 더블베이스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파커 퀼텟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 뉴욕타임즈

“강렬하고 기교가 뛰어나며 자신감 넘치는”

— 보스턴 글로브

“놀라운 기교와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

— 워싱턴포스트

Mozart

String Quartet No. 22 in B-flat major, K.589

Prokofiev


String Quartet No.2 in F major, Op. 92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송어”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조던 홀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티켓 구매 및 공연 정보: www.kcsboston.org | www.chineseperformingarts.net 전화 문의: (781) 223-4411

공동 주최: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한미예술협회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
 중국공연예술재단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양도소득세 (5)

- 임대부동산에는 15%가 아닌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임대중인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부동산에는 15%가 아닌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15%로 알고 있는데, 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1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5%'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며, 필자 또한 양도소득 세율이 15%(고소득자의 경우 20%)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차익(capital gain) 중 일부는 실제로 25%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 취득일 : 2004년 1월 1일
- 양도일 : 2017년 12월 31일
- 취득가액 : \$300,000
- 자본적지출액 \$50,000
- 양도가액 : \$450,000
- 감가상각한 금액 : \$160,000
- * 내용연수 27.5년, 정액법(straight-line method)를 적용한 정확한 금액이라 가정함

양도차익(Capital gain)의 계산
먼저, 김한국씨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을 계산해 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selling price)' 에서 양도시점의 '조정된 취득가액(adjusted basis)' 을 차

감해 계산합니다. 조정된 취득가액이란 아래와 같이 당초취득가액에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킨 자본적지출액(예를 들면, 난방장치를 새로 한 것 등)을 더하고, 임대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액(depreciation) 등을 차감한 것입니다.

| |
|------------------------|
| 당초취득가액 (\$300,000) |
| (+) 자본적지출액 (\$ 50,000) |
| (-) 감가상각비 (\$160,000) |
| = 조정된 취득가액(\$190,000) |

위와 같이 계산하면 임대용 주택의 조정된 취득가액은 \$190,000이며, 김한국씨의 양도차익은 \$260,000 (= 양도가액 \$450,000 - 조정된 취득가액 \$190,000)입니다.

양도차익을 15%적용할 이익과 25%적용할 이익으로 나뉘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임대부동산의 경우 25%로 과세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양도차익 \$260,000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익' 과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익' 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익을 '미환수된 \$ 1250 이익(unrecaptured \$ 1250 gain)' 이라 합니다.

'미환수된 \$ 1250 이익(unrecaptured \$ 1250 gain)' 이란 임대용 아파트와 같은 감가상각대상 부동산(real property)에 적

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capital gain) 중 임대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의 이익에 대해서는 15%가 아닌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김한국씨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김한국씨의 양도차익은 \$260,000이고, 임대기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계상한 금액은 \$160,000입니다. 따라서 이익 \$260,000 중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금액 \$160,000에 해당하는 이익은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00,000은 15%(고소득자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5%의 세율은 실제 투자한 가액 이상으로 양도할 경우만 적용돼

위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된 \$100,000은 양도가액 \$450,000에서 김한국씨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 \$350,000(당초의 취득가액 \$300,000 + 자본적지출액 \$50,000)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이 15%라는 것은, 양도가액이 실제로 투자한 가액(당초의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라고?
가끔 실제 투자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판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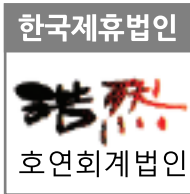
투자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말하고,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낼 세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 봅니다.

위의 사례에서 김한국씨가 임대용 주택을 \$290,000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김한국씨는 주택을 \$300,000에 취득해 수리비 \$50,000을 지출했으니 총 \$350,000을 투자한 셈입니다. 이를 \$290,000에 팔았으니 \$60,000을 손해본 것이고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낼 세금도 없겠지요?

그런데 김한국씨의 생각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이익을 양도가액에서 조정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한국씨는 임대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이미 \$160,000을 비용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조정된 취득가액은 김한국씨가 생각한 \$350,000이 아닌 \$190,000(= 실제 투자액 \$350,000에서 감가상각비 \$160,000을 차감)입니다. 결국 세법상으로는 \$190,000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290,000에 팔았으니 손해를 본것이 아니라 \$100,000의 이익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이익 \$100,0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이 때에도 미환수된 \$ 1250 이익(unrecaptured \$ 1250 gain)규정에 따라 이익 \$100,000중 이미 감가상각한 금액 \$160,00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김한국씨는 이익 \$100,000전액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강원도 농수산물 가을맞이 행사

특별 대박세일 4일장

기간: 11월 9일(금)~11월 12일(일) 4일장, 오전 9시30분~오후 7시30분
 장소: 155 Parker St, Lawrence, MA 01843
 문의: 강원인터내셔널 224.577.7777

강원도 농·수 특산물 홍보 판매 품목

맥초류: 갈근, 감초, 겨우살이, 당귀, 맥문동, 맥아, 벌나무,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개동쑥, 더덕, 삼지구엽초, 나물류, 구기자, 결명자, 해녀, 다시마환, 도라지환, 솔잎환, 인진쑥환, 익모초환, 산병잎환, 함초환, 도라지엑기스, 도라지엑기스골드, 다시마분말, 솔잎분말, 도라지분말, 건대추

건어물류: 방어포, 마른오징어, 노가리, 황태포, 황태머리, 황태채, 맥반석오징어, 쥐포, 멸치가루, 국멸치, 조림멸치, 볶음멸치

나물류: 곤드레, 고사리, 취나물, 부지깥이, 토란대, 삼계탕재료, 표고버섯, 표고가루, 호박말림, 가지말림

메밀류: 봉평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메밀묵가루

차류: 맥문동구기자차, 보리차, 맥문동차, 메밀차

해조류: 미역, 다시마, 미역귀, 재래돌김, 파래김, 김밥김, 장각미역, 김자반

젓갈류: 저염명란, 양념명란, 창란젓, 멧게젓, 어리굴젓, 낙지젓, 오징어젓, 가리비젓, 새우젓, 황석어젓, 조개젓, 멸치젓, 밴댕이젓, 웰빙오징어젓, 가자미식혜, 갈치숙젓, 명태회무침, 방게무침

액기스류: 오미자진액, 매실액기스, 오로니아진액, 오디액진액

반찬류: 도라지무침, 더덕무침, 고들빼기, 양념깻잎, 된장깻잎, 고추무침, 무말랭이

생선류: 박대(서대), 민어조기, 명태코다리, 참조기, 반건조오징어

떡류: 쑥떡, 감자떡, 취나물떡

한과류: 수제약과, 찹쌀유과, 쑥유과

잡곡류: 찰수수가루, 새천년7곡, 차좁쌀, 흑미, 적두, 콩국수가루, 미숫가루, 들깨가루, 사리태, 쥐논이콩

장류: 황토로 구운소금, 향초소금, 복분자소금, 청국장,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기름류: 들기름, 참기름

죽류: 은행마죽, 버섯마죽, 렌틸콩마죽, 15곡마죽, 호박마죽, 결명자검은콩마죽, 건강참마밀죽, 병잎마죽

가리비젓 : 1파운드 사시면 **1파운드 공짜**

환공 SALE

홍삼 봉밀절편

2개사면 1개 공짜



야생 산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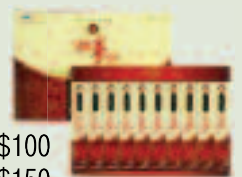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홍삼순액

\$300이상 구매시
 홍삼뿌리 1캔
 (37.5g/60볼 상당)
 무료 증정



홍삼 정과

1박스: \$150→\$100
 2박스: \$300→\$150



전화문의:
224.577.7777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9) 주식투자의 진실

어뉴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을 투자하는데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판매하는 재정설계사를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 를 찾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머릿도 희끗희끗해지고 몸과 마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노후대책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지만 주식시장이 무섭습니다. 이럴 때 '평생 보장 연금' 이라고 말하며 이것저것을 보장 (Guarantee)한다고 하면 정확한 속 내용과 숨어있는 수수료 그리고 높은 경비를 알지 못한 채 투자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재정칼럼' 을 연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주식투자의 진실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나열해 봅니다.

- * 5년 이내에 필요한 돈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그만큼 투

자 위험성 역시 높습니다.

- *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 * 주식투자 위험을 적게 하려면 채권투자와 현금보유는 필수입니다.
- * 투자의 위험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투자하면 위험성은 항상 동반합니다.
- *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사람도 투자선택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 * 어떤 투자방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습니다.
- * 투자자 누구나 한때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나는 모른다" 라는 대답이 정답입니다.
- * 투자자가 똑똑한 것과 주식투자 결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명품 등으로 돈 잘 쓰는 친구를 보면 장기 투자로 제대로 하는 투자방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수익률과 거의 같습니다.
- *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팔고 나오면 투자 손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 * 데이 트레이딩 (Day Trading)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에는 투자실패로 이어집니다.
- * 주식 대박은 흔하지 않습니다.
- *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상승하기 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 과거 주식시장 통계를 연구해서 미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그저 허망한 꿈입니다.
- * 복리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복리의 단점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 * 투자 결정할 때 마음 (Emotion)을 조정할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 개별회사 투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 *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루 (Boring)해야 합니다.
- * 우리는 모두 워런 버핏이 결코 아닙니다.
- *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않습니다.
- * 보험은 투자가 아닙니다.
- *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으면 폭락할 때도 있습니다.
- * 미래 예측은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 예측은 더욱 어렵습니다.

50년 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90%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현재는 95%가 기관 전문 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ment) 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거대한 금융회사 전문가들과 경쟁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과거 주식시장 이해, 감정 조절 (Discipline), 그리고 겸허한 마음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지난 칼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 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 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직종도 다시 의심해 볼 것" 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행정 법안에 H-1B의 경우 심사를 할 때 H-1B비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10월 1일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류하며 83% 이상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발급하고 연봉이 너무 낮다는 것을 주요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용주가 연봉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연봉이 적절하다면 이것은 H-1B가 해당하는 전문직종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고 고용주가 "전문직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전문직이라면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여 거절하는 퇴비우스 띠의 상황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청원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방향은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수십년간 이민법을 해 오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 (Class Action)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답변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은 이민 소송 변호사들과 함께 이러한 RFE답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였고 퇴비우스 띠를 끊는 방법은 이민국의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최근 RFE가 나온 케이스들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략 중 하나는 "이민국의 주장이 일반적인 직종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이 수혜자가 있는 직종에서는 다르다" 라는 직종의 특이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모든 직종에 대해 전문가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기존 이민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치열한 소송에서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소송과 일반 소송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 변호사팀은 RFE와 기존 사례

를 분석하면서 여러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H-1B 추첨을 뚫고 기회를 잡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정책과 이를 따르는 이민국의 RFE 대량 발급 사태에 당황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SONGLAWFIRM



뉴저지 본사 소속 시니어 변호사

songlawfirm.co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업,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업,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9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우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Core Services

1. Saturday Lock-In

SAT1 / SSAT class
Essay Writing
Practice tests
Teachers' evaluation



2. Admission Process

Secondary School / College
School lists
Application form
Essay instruction / Revision
School tour and Interview

3. Guardianship Service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visit and meeting
Test Plans / Registration
Summer activities / Enrollment

2017 Thanksgiving Specials

- SAT 1/SSAT Tests Prep 그룹 수업
- SAT 2 Subject Tests Prep 개인 수업
- Contest Prep 개인 수업
- 학교 교과목 수업 보강

Grade

SSAT: 8, 9학년
SAT: 10, 11학년
기타 수업: All graders available

Date & Sessions

11월 18일(토) - 11월 26일(일)
(23일 Thanksgiving 당일은 휴강)
Session 중간 등록 가능

Tuition and Fees

수업 종류와 시간에 따라 차등
담당자 문의

Daily Schedule

| | |
|-----------------|---|
| 09:30am-11:30am | SAT1 / SSAT수업(Reading Comprehension)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
| 12:00pm-01:00pm | 점심 식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구성으로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 01:00pm-03:00pm | SAT1 / SSAT수업(Writing / Verbal)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
| 03:30pm-05:30pm | Practice Test(Reading, Writing, Verbal) 선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

저희 보스톤 교육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준비된 교재와 강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SAT1 / SSAT 및 각 중 Subject Tests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